

碩士學位論文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과
韓國의 對應方案

申 安 均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貿易管理 專攻

1990年 6月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과 韓國의 對應方案

**The Ideas of Pacific Economic
Community and The Direction of
The Policy of Korea**

指導教授 金容正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0年 6月 日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貿易管理 專攻**

申 安 均

論文認准書

申安均의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0年 6月 日

審查委員長

李鍾中



審查委員

金容正



審查委員

金承光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研究의 目的	1
第 2 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4
第 2 章 太平洋經濟共同體의 擡頭背景	5
第 1 節 地域經濟統合의 本質과 地域主義	5
1. 地域經濟統合의 概念과 類型	5
2. 地域經濟統合의 經濟的 效果	10
3. 地域主義의 登場과 最近의 動向	13
第 2 節 太平洋地域主義의 登場	18
第 3 章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의 必要性과 諸構想案	22
第 1 節 太平洋地域諸國의 特性	22
1. 一般概況	22
2. 太平洋地域諸國의 性格과 特性	26
第 2 節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의 必要性	28
1. 貿易의 地域集中	28
2. 競爭의 深化	29
3. 資源協力의 效率化	32
4. 多角的 協力의 推進	33
第 3 節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에 관한 諸想案	35

1. PAFTA案	35
2. OPTAD案	38
3. 環太平洋連帶案	42
第 4 章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에 관한 利害關係國의 立場	46
第 1 節 先進國	46
1. 日本	46
2. 美國	47
3. 澳洲. 뉴질랜드. 캐나다	50
第 2 節 아시아 NICs와 ASEAN	52
1. 아시아 NICs	52
2. ASEAN	54
第 3 節 기타 關係國	57
1. 蘇聯	57
2. 中國	59
第 5 章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과 韓國의 對應方案	64
第 1 節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의 問題點과 發展方向	64
1. 問題點	64
2. 發展方向	66
第 2 節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에 관한 韓國의 參與必要性	68
1. 韓國의 關心	68
2. 韓國의 參與必要性	69
第 3 節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과 韓國의 對應方案	71
1. 交易增進方案	71

2. 資本與 技術協力強化方案	72
3. 資源協力強化方案	73
第 6 章 要約 及 結論	75
SUMMARY	78
參考文獻	81

圖表目次

<圖 3-1> OPTAD의 組織 및 活動分野	40
<表 2-1> 主要地域經濟統合體	15
<表 2-2> 最近 美國, EC, 日本의 地域主義 比較	17
<表 3-1> 太平洋地域諸國의 人口 및 面積	22
<表 3-2> 太平洋地域國家들의 實質 GDP 成長率 推移	24
<表 3-3> 太平洋地域主要國家 GNP 現況	25
<表 3-4> 太平洋地域諸國의 經濟的 特性	27
<表 3-5> 太平洋域內 各國의 域內貿易依存度	29
<表 3-6> 國別 資源埋藏量의 域內 占有率	32
<表 3-7> 太平洋地域經濟統合案	45
<表 4-1> 美.日.아시아 NICs간 貿易不均衡	53
<表 4-2> 蘇聯의 對太平洋諸國 貿易現況	58
<表 4-3> 中國의 輸出, 輸入의 實質成長率: 1980-86	61
<表 4-4> 中國의 總 交易中 太平洋地域의 比重	61
<表 5-1> 太平洋圈의 豫想實質 經濟成長率(1989-90)	65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

戰後 國際經濟의 變化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特徵은 新保護貿易主義와 地域主義라는 것이다.

戰後 國際經濟에서 貿易競爭의 深化, 資源民族主義의 擡頭, 南北問題의 尖銳化, 그리고 美國經濟의 相對的인 優位性 袕失 등은 新保護貿易主義라는 既存의 保護貿易主義와는 다른 새로운 保護貿易主義를 낳게 하였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고유의 經濟問題를 地域內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地域主義 (regionalism)를 초래케 하였다. 즉 隣接諸國들은 經濟的 및 政治的인 共同利益을 中心으로 하여 經濟協力機構을 形成하고 이 經濟協力機構를 통하여 加盟國들은 貿易, 資本 및 技術協力 등의 分野에서相互 特惠關係를 強化하는 한편 非加盟 域外國家에게는 排他的인 政策을 實施하여 加盟國家間에는 貿易自由化를 추진하고 域外國家에게는 差別貿易政策을 實施하는 傾向이 높아지고 있다.¹⁾

이러한 新保護貿易主義의 擡頭와 地域主義의 傾向은 전후 自由世界經濟을 이끌어온 凡世界主義(globalism)의 退潮와 더불어 自由無差別原則을 限定된 地域에 適用하려는 地域主義를 世界經濟에 擴散시켰고 이러한 움직임은 太平洋地域에서 太平洋地域主義를 登場시키는 擡頭背景이 되고 있다.

太平洋地域은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日本이 거대한 產業國家로 浮上하여 世界 第 2의 經濟強國이 되었고, 韓國을 비롯한 아시아 NICs들도 工業化

註1) 安承喆, 國際經濟의 理論과 政策(서울 : 法文社, 1983), p.396.

政策의 成功으로 高度의 經濟成長과 貿易伸張을 示顯하였으며, ASEAN諸國들
도 豐富한 天然資源을 바탕으로 積極的인 開發政策에 힘입어 높은 經濟成長
을 이룩하였다.

太平洋地域은 이같은 높은 經濟成長과 潛在力으로 지금까지 世界經濟의
中心이었던 大西洋地域을 능가하는 地域으로 浮上하였으며, 이 地域의 經濟
成長과 이에 따른 經濟構造變化는 域內의 相互依存關係와 競爭을 深化시켰
다.

이러한 域內의 相互依存關係, 競爭의 深化와 함께 1958年 EEC의 出帆을
계기로 太平洋地域에서는 地域經濟機構를 設立하려는 움직임이 本格化 되었
으며, 오늘날 世界經濟의 地域別 움직임에서 뚜렷한 特徵의 하나로 나타나
고 있는 것이다.

地域主義을 擴大시키고 있는 國際經濟環境의 特徵的 傾向과 域內의 높은
相互依存性과 競爭의 深化에 效率的으로 對處하기 위해 長期的인 眼目에서
同 地域의 共同利益과 繁榮을 위한 緊密한 相互依存關係의 維持, 競爭深化
에 따른 緊張과 摩擦을 事前的으로 解消할 必要性의 增大와 그리고 아직 同
地域에 經濟協力機構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太平洋地域
은 어떠한 形態로든 經濟協力機構를 形成할 것으로 展望되며, 또 利害關係
國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論議가 활발히 進行되고 있다.

太平洋地域은 우리나라 立場에서 매우 큰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즉, 우
리나라는 太平洋地域에 대한 貿易依存度가 높으며 對外指向的 成長政策의
主 對象地域인 것이다. 더구나 이 地域이 갖는 豐富한 賦存資源과 방대한
市場規模로 볼때 우리나라로서는 資源과 輸出市場의 安定的인 確保라는 側
面에서도 이 地域과의 地域經濟協力機構結成의 必要性이 減增하고 있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太平洋地域에서 地域主義가 擡頭되게된 客觀的인
요인을 살펴보고, 이른바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의 必要性과 그 동안 提起

된 諸構想案들을 分析하고,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에 대한 利害關係國들의
立場을 把握하여 그 問題點과 發展方向을 導出하고 太平洋地域諸國의 일원
으로서 우리나라의 對應方案을 摸索해 보는데 그 目的이 있다.

第 2 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本 研究의 目的에 따라서 本 論文은 研究의 範圍를 6章으로 構成하였다.

第 1 章은 研究의 目的과 研究의 方法 및 範圍를 밝힌 序論부분이며,

第 2 章에서는 太平洋經濟共同體가 登場하게된 背景을 地域經濟統合의 本質과 地域主義 그리고 太平洋 地域主義의 登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第 3 章에서는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의 必要性과 그 동안 提起된 諸構想案의 內容과 問題點을 分析하였고,

第 4 章에서는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에 대한 利害關係國의 立場을 先進國과 아시아 NICs, ASEAN 그리고 기타 關係國들로 나누어 把握하였으며,

第 5 章에서는 앞의 第 3 章과 第 4 章에서 살펴본 바에 입각하여 앞으로의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의 發展方向을 提示하고, 韓國의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에 관한 參與必要性을 살펴본 후, 韓國의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에 대한 對應方案을 摸索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第 6 章에서는 本 論文을 要約하고 結論을 맺도록하였다.

本 論文의 研究方法은 社會科學的 研究方法中 文獻的 研究方法을 주로 이 용하였으며, 本 論文의 研究對象地域은 太平洋地域의 모든 國家들을 研究對象地域으로 하는 것은 집중적인 연구가 어려우므로 基本對象地域으로 市場經濟體制를 채택하는 國家들로 限定하였다. 즉 太平洋地域의 先進 5個國인 美國, 日本, 澳洲, 뉴질랜드, 캐나다와 아시아 NICs인 韓國, 臺灣, 香港 그리고 ASEAN 5個國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싱가포르, 泰國 및 파푸아뉴기니아 등 14個國家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에 대하여 상당한 關心을 갖고 있는 中國과 蘇聯에 대해서도 一部 言及하였다.

第 2 章 太平洋經濟共同體의 擡頭背景

第 1 節 域經濟統合의 本質과 地域主義

1. 地域經濟統合의 概念과 類型

(1) 地域經濟統合의 概念

經濟統合의 定義 또는 概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創一的으로 統一된 見解가 없으며 論者에 따라서 각각 여러가지 意味와 內容으로 把握되고 있다.¹⁾

J.Tinbergen은 “經濟統合은 最適狀態에 있어서 經濟의 運行을 沮害하는 人爲的 障碍를 排除하고, 調整과 統一에 관한 모든 소망스러운 요소를 의식적으로 導入함으로써 國際經濟의 올바른 構造를 形成하는 것”²⁾이라고 주장했다.

또 B.Ballassa에 의하면 經濟統合이란 “각국에 있어서 經濟單位의 差別을 排除하는 수단이며, 여러가지 差別이 존재되지 않는 狀態”³⁾라고 正義를 내렸던 것이다. Ballassa는 經濟單位間의 差別의 除去 및 撤廢의 範圍나 그 정도에 따라 經濟統合의 形態를 다섯가지로 구분한 후 經濟統合의 發展過程과 그 狀態를 研究했다. 한편 어떤 학자는 「規模의 經濟」의 實現을 확보하기 위한 意義를 강조하고 國際分業의 原理로서 比較生產費의 原理外에 合理的 分業의 原理를 주장했다.

결국 經濟統合이란 “經濟的 厚生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安定的 成長을 도모하거나, 혹은 高度成長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經濟的인 方法, 制度 및 組織이다”⁴⁾고 볼 수 있는 것이다.

經濟統合을 보다 包括的으로 본다면 地理的으로 隣接하는 2국 또는 그 이

註1) 申鉉鐘, 貿易政策(서울, 博英社, 1979), p.357.

2) J.Tinbergen,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Amsterdam:1965), p.57.

3) B.Balassa,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Illinois: 1961), pp.1-3.

4) 申鉉鐘, 前揭書, p.358.

상의 나라가 同盟을 맺고, 그 加盟國은 非加盟國에 대하여 關稅 및 그 밖의 方法에 의하여 差別化 하는 것이며 加盟國 상호간의 貿易은 自由化 되며, 나아가서 共通의 財政·金融政策을 실시하고 共通의 通貨를 制定하여 經濟面뿐만 아니라 政治·社會面에서도 協力하는 것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⁵⁾

또한 經濟統合과 國際化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國際化와 經濟統合과의 관계는 國際化가 經濟의 範世界的 統合을 誘導하는 반면 經濟統合은 經濟의 地域的 統合을 誘導한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國際化의 論理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相互 共通點이 있다. 이를 관계를 보다 具體的으로 把握하기 위해 그 中間概念으로써 經濟의 地域化란 概念을 導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地域化(Regionalization)란 特定 地域에 集中되어 나타나는 現狀을 의미하는데, 즉 일정 지역내에서 각 國民經濟 상호간의 經濟交流가 증진되고 相互依存性이 강화됨으로써 地域內 각국들은 하나의 共同經濟地域으로 統合되며, 그 經濟權내에서는 地域고유의 貿易 및 金融上의 秩序가樹立되는 過程을 의미한다.

결국 經濟의 地域化는 그 動機나 進行形態面에서 國際化와 동일한 屬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國際化의 일반적인 屬性은 세계전체를 하나의 市場圈으로 統合해 가는 普遍性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 地域化는 그러한 國際化가 一定地域에 局限하여 展開됨으로써 世界經濟를 서로 다른 特性을 가진 여러개의 地域經濟圈으로 구획화하는 屬性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國際經濟秩序 및 世界市場組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國際化와 地域化間에根本的인 差異點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⁶⁾

註5) 鄭道泳, 國際經濟(서울: 博英社, 1978), p.476.

6) 孫炳海, 經濟統合論(서울: 法文社, 1988), pp.26-39.

(2) 地域經濟統合의 類型

地域主義의 類型에 대해서는 論者에 따라 상이하게 主張되고 있다. 또한 세계 각 地域에 形成된 地域主義도 그 目的, 範圍, 制度, 性格 등에서 상호 헌저하게 차이가 있다. 따라서 地域的 經濟統合은 加盟國間에 經濟的 差別의 除去 내지 撤廢정도 즉 加盟國間의 相互依存度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⁷⁾

UN에서 간행된 資料에 의하면 經濟統合의 形態는 첫째, 長期貿易協定의 締結, 둘째, 關稅率의 特惠的 適用, 세째, 數量制限의 特惠的 適用, 네째, Sector간의 統合 또는 部分的 統合, 다섯째, 自由貿易地域, 여섯째, 關稅同盟, 일곱째, 經濟同盟으로 分류되고 있다.⁸⁾

또한 발랏사(B.Balassa)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면, 그는 經濟統合의 形태를 統合의 段階 내지 定度에 따라 다음의 다섯가지로 分류하고 있다.⁹⁾

- ① 自由貿易地域(Free Trade Area)
- ② 關稅同盟(Customs Union)
- ③ 共同市場(Common Market)
- ④ 經濟同盟(Economic Union)
- ⑤ 全面的 經濟統合(Total Economic Integration)

經濟統合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 形태를 취하나 발랏사에 의하여 分류된 所論에 따라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¹⁰⁾

첫째단계인 自由貿易地域은 經濟統合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서 會員

註7) H.R.Heller, International Trade: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New Jersey: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1973, pp.183-184.

8) U.N., Regional Market Arrangement with Reference to the ECAFE Region, 1960.

9) B.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London:1962), pp.2-3.

10) 孫明煥, “經濟統合의 理論과 進展에 關한 考察”, 忠南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論文集, 第2卷 2號, 1975, pp.21-22.

國間에 존재하는 關稅 및 기타의 數量制限을 撤廢하여 域內貿易의 自由化를 실현시킨다. 그러나 각국은 非會員國에 대해서는 關稅自主權을 가지고 獨自的인 貿易政策을 시행한다. 따라서 自由貿易地域을 形成한 國家는 단일의 域外共通關稅를 갖지 못하며, 또한 生產要素의 域內 移動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이의 代表的인 예로서는 「유럽自由貿易聯合」(EFTA)과 「中南美自由貿易聯合」(LAFTA)을 들 수 있다.

둘째단계인 關稅同盟은 域內의 자유로운 商品移動을 저해하는 關稅 및 數量制限을 禁止한다는 점에서는 自由貿易地域과 같으나 非加盟國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단일한 共通關稅를 부과한다는 점이 그것과 다르며, 生產要素의 移動은 여전히 制限되어 있다. 이의 예로서는 「베네룩스關稅同盟」과 「赤道 아프리카關稅同盟」(ECU) 등이 있다.

세째단계인 共同市場은 關稅同盟보다 더 고도한 經濟統合의 형태로서 그 것은 비단 加盟國間의 모든 貿易障壁을 완전히 撤廢함으로써 商品의 자유로운 移動을 실현시킬 뿐만 아니라 資本 및 勞動 등 生產要素의 移動에 대한 制限을 撤廢함으로써 그것의 자유로운 移動을 全面的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유럽共同市場」(EC)은 그 가장 成功的인 예이며, 아직도 未成熟段階에 있지만 「中南美共同市場」(CACM)도 그 예로 들 수 있다.

네째단계인 經濟同盟은 共同市場이 進一步한 經濟統合의 形態라고 할 수 있다. 이 段階에 들어서면 商品 및 生產要素의 자유로운 移動에 대한 모든 制限의 撤廢는 물론 加盟國間의 經濟政策上의 差異까지도 除去시키기 위하여 經濟政策 全般에 걸쳐 어느정도의 調整과 統一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共同農業政策을 실시하고 있고 單一한 通貨制度樹立을 摸索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오늘날의 EC는 아마 경제동맹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高度의 經濟統合形態인 全面的 經濟統合은 全加盟國에 대하여 엄격한 拘束力を 가진 超國家的인 機關의 設置를 통하여 經濟政策의 調整에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通貨制度, 金融 및 財政政策, 景氣政策等 經濟政策全般에 걸쳐 統一的인 政策을 실시하며, 더 나아가 社會政策의 統一까지도 기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形態의 經濟統合은 終局에 가서는 菲廉적으로 政治的인 統合까지도 수반하게 될 것이다.

經濟統合은 이상과 같은 統合의 段階的 形態와는 다른 基準에 의해서 구분되기도 한다.

우선 加盟國이 主權을 유지하면서 協力を 갖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機能的 統合(functional integration)과 制度的 統合(institutional integ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¹⁾

또 統合의 範圍를 기준으로 하여 部門別 統合(sectoral integration)과 全般的 統合(overall integration)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한편 經濟發展段階가 동등한 국가간의 統合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水平的 統合(horizontal integration)과 垂直的 統合(vertical integration)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註11) R.Sannwald and stohler, Economic Integration (New Jersey: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9), pp.84-98.

2. 地域經濟統合의 經濟的 效果

地域經濟統合의 經濟的 效果에 관한 대표적 理論으로는 情態的 效果를 분석한 關稅同盟理論(the theory of customs union)과 動態的 效果를 고찰한 大市場理論(the theory of the large market)이 있다.

바아너(J.Viner)는 關稅同盟理論에 있어 貿易創出效果(trade creation effect)와 貿易轉換效果(trade diversion effect)의 2가지 概念을 비교하여 國際貿易에 미치는 影響을 論하고 있다.¹²⁾ 關稅同盟의 結成으로 加盟國 사이에 關稅가 撤廢되면 우선 輸入價格이 그만큼 떨어져서 域內에서 流通되지 않았던 商品이 簡便히 流通되어 加盟國 사이에 새로운 貿易이 생기는데, 이效果를 貿易創出效果라 부르고 반면 非加盟國으로부터의 輸入價格이 싸져도 그 關稅負擔 때문에 오히려 加盟國으로부터의 輸入價格이 상대적으로 싸져서 종래 非加盟國으로부터 輸入하던商品을 加盟國으로 바꾸게 되는 效果를 貿易轉換效果라 한다.

貿易創出의 경우에는 生產費가 비교적 높은 自國으로부터 生產費가 비교적 낮은 加盟國으로 貿易패턴이 바뀌게 됨으로써 결국 厚生을 증진시키게 되고 또한 資源의 效率的인 國際的 配分이 가능하게 되나, 貿易轉換의 경우에는 關稅同盟을 結成하기 전에는 無差別的인 關稅를 부과하고도 自國보다 生產費가 가장 저렴한 國家로부터 輸入하였으나, 關稅同盟의 結成으로 加盟國의 生產費가 自國과 非加盟國보다 저렴하므로 加盟國으로부터 輸入을 轉換하게 되는데, 이때 加盟國의 生產費가 非加盟國의 生產費보다 높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貿易패턴이 關稅同盟 結成前의 生產費가 비교적 낮은 國家에서 關稅同盟 後의 生產費가 비교적 높은 加盟國으로 移轉되기 때문에 厚生을 減少시키며 또한 資源의 效率的인 國際的 配分이 不可能하게

註12) J. Viner, The Customs Union Issue (New Y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53), pp. 41-52.

된다는 것이다. 즉 貿易創出量이 貿易轉換量보다 클 때 地域內國家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世界的으로 社會的 厚生과 資源配分의 效率性이 增大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립시-랜캐스터(R.G. Lipsey, K.G. Lancaster)에 의해 주장된 次善의 理論(the theory of second best)은 關稅同盟理論과 깊은 關聯을 가지고 있는데 즉 “모든 最適條件이 成就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 最適條件의 達成만으로는 經濟厚生을 반드시 增加시키지는 못한다.”¹³고 主張한다.

따라서 關稅同盟理論을 次善의 理論에 비추어 보면 全範圍最適條件 즉 自由貿易이 成立되지 않는 한 關稅同盟國 사이의 關稅의 撤廢는 반드시 經濟厚生을 增加시키게 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결국 關稅同盟의 厚生效果가 있다고 볼 때 「次善의 理論」과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關稅障壁을撤廢하는 國家의 수가 增加한다고 하여 世界經濟의 厚生이 반드시 增加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厚生의 極大化는 自由貿易의 完全한 實施에 의해 保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關稅同盟理論」은 加盟國 및 世界의 厚生水準과 資源利用의 效率化와 관련되어 살펴볼 수 있으나, 반면 시토프스키(T. Scitovski)는 “大市場理論은 加盟國 및 世界의 經濟成長 및 發展과 연결시켜 설명된다. 大市場理論은 加盟國 사이에 市場의 확대가 競爭의 激化를 가져오고 이것이 大規模生產方式을 초래하여 결국 價格을 引下시켜 또 다시 市場이 확대되고 競爭을 한층 激化시킴으로써 生產能率의 向上을 기할 수 있다.”¹⁴고 강조한다.

關稅同盟으로 域內關稅가 撤廢되면 同一產業內에서 潛在的 競爭者들의 수가 증가된다. 이와 같이 域內 競爭者들의 수가 增加하면 同盟前에 각국에서

註13) R.G. Lipsey, "The Theory of Customs Union: A General Survey", Economic Journal, September 1960, pp. 499-500.

14) T. Scitovski, Economic Theory and Western Europe Integration, (London: Oxford Univ. Press, 1958), Chap III.

生産하던 單一企業이나 多數企業의 獨占力은 減少되고 競爭이 深化된다. 비록 規模의 經濟에 의해 同盟地域全體로서의 企業數는 減少되더라도 결국 生產條件이 우수한 能率的인 企業만이 存續이 可能하므로 生產能率은 그만큼 向上될 것이다. 또한 關稅同盟은 新輸入商品과 國內生產品間의 競爭強化 貿易去來에 수반되는 不安全感 除去, 市場情報交流의 促進등으로 더욱 競爭을 深化시킬 것이다.

이상과 같은 理論에서 몇 가지 缺點을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 靜態的 效果에서 관세동맹이론의 경우 非加盟國에 대하여 差別的인 關稅를 부과할 경우 世界厚生이 經濟統合 以前보다 減少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點과 둘째, 動態的 效果에서 大市場理論의 경우 加盟國內에서 市場이 확대되어 가고 있을 때 國際分業特化가 소홀하게 이루어진다면 加盟國 사이에 競爭力 내지 對立的 關係가 深化될 수 있는 點과 세째, 이와 같은 規模의 經濟와 競爭激化의 實現은 오히려 世界的인 自由貿易의 擴大로서 더욱 바람직하다는 점이다.¹⁵⁾

그러나 世界的인 立場에서 경우에 따라 純損失이 있더라도, 自國 및 域內의 經濟的 利益과 發展을 위하여 오늘날 經濟統合은 계속 增大하고 있는데, 앞으로 地域經濟統合의 終局的 目標는 自國 및 域內發展과 함께 世界經濟의 均衡的인 福祉와 厚生 및 平和에 기여할 수 있도록 結成될 때 만이 그 진정한 意義를 찾을 수 있다.

註15) 徐清錫, “太平洋沿岸 國家의 經濟的 實態와 地域協力體 結成의 方向”, 慶熙大學校 國際平和研究所 平和研究, 第4卷 第1號, 1984, P 168.

3. 地域主義의 登場과 最近의 動向

(1) 地域主義의 登場

최근의 國際經濟秩序는 多角的. 無差別 原則에 입각한 凡世界主義(Globalism)를 표방하는 GATT, IMF體制가 弱化되면서 自由主義的 經濟秩序를 限定된 地域에 적용하려는 地域主義가 擙頭되고 있다.

戰後 國際經濟秩序는 貿易面에서의 GATT와 通貨面에서의 IMF를 兩大支柱로 하는 自由貿易原則에 입각한 凡世界主義의 기초위에서樹立되어 왔다. 이러한 多者間 自由貿易體制와 最惠國待遇를 特徵으로 하는 國際經濟秩序에서 世界經濟는 급속한 發展과 貿易擴大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이러한 凡世界的 自由貿易秩序는 GATT, IMF體制의 弱化와 더불어 커다란 構造的 變化를 일으키게 되었다. 1960년대말부터 露呈되기 시작한 달러화 危機는 1970년대 들어 IMF體制의 붕괴를 초래했고, 1970년대의 두차례에 걸친 油價波動 이후 新保護貿易主義가 世界全體에 퍼지게 됨으로써 無差別 自由貿易原則에 입각한 GATT體制는 사실상 그 機能이 弱化된 상태에서 名目上의 國際的 經濟規範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新保護貿易主義란 과거 後進經濟가 自國의 產業保護를 위해서 關稅나 非關稅障壁의 構築을 통하여 外國商品의 國內進入을 어렵게 하는 전통적인 保護貿易主義와 구별되는 概念으로, 先進工業國이 經濟的으로 약한 開途國 혹은 新興工業國을 대상으로 自由, 多者間無差別이라는 GATT의 基本原則보다는 互惠主義와 雙務的인 協商을 앞세우며, 關稅부과의 범위를 벗어난 각종 보복을 協商道具로 하고 自國市場保護에 그치지 않고 相對方의 商品, 서비스, 金融, 資本, 勞動市場의 開放과 知的所有權保護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¹⁶⁾ 즉 오늘날의 國際經濟秩序는 互惠的 多者間

註16) 安斗淳, “EC 및 亞·太經濟協力과 韓國의 役割”, 國會報, 1989, 2, p.59.

原則의 自由貿易主義가 크게 퇴조하면서 雙務的 保護貿易主義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保護貿易主義의 登場과 함께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이 經濟의 地域主義 性向의 強化라 할 수 있겠다.

最惠國原則과 多者間 協商의 原則하에서 關稅引下, 差別待遇禁止, 相互主義의 制限, 國際貿易秩序 確立 등의 수단을 바탕으로 하여 全世界的 自由貿易을 추구하던 舊秩序의 봉괴와 각 개별국가들의 독자적인 新保護貿易主義 행동은 經濟力이 약한 開途國에 뿐만 아니라 先進工業國들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危險負擔을 안겨준다. 이러한 危險과 不確實性으로부터의 탈피수단으로隣接國家와 共同關心을 가진 國家들 간의 協力を 모색한 결과 擡頭된 것이 地域主義化 現象이다.

1958년 EEC¹⁷發足 이후 地域主義에 입각한 地域的 經濟統合은 유럽自由貿易聯合(EFTA¹⁸), 東歐相互經濟援助會議(COMECON¹⁹), 東南亞國家聯合(ASEAN²⁰), 아랍經濟共同體(AEC), 그 밖에 濟洲와 뉴질랜드 사이에 NAFTA(뉴질랜드, 濟洲 自由貿易地帶)協定이 1966년 締結되었으며 中南美地域의 經濟統合機構로서 LAFTA²¹(拉atin아메리카 自由貿易聯合), CACM²²(中南美 共同市場), CCM²³(カリ브 共同市場) 등이 1960-67年 사이에 設定 되었고, 아프리카의 주요 經濟統合機構로서 CEAQ²⁴(西아프리카 經濟共同體), UDEAC²⁵(中央아프리카 關稅經

註17) European Economic Community, 1958년 創設, 6個國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12개 會員國이 있다.

18)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1960년 創設, 7개 會員國.

19)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1949년 創設, 8개 會員國.

20)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961년 創設, 6개 會員國.

21) 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1961년 創設, 11개 會員國.

22)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1960년 創設, 12개 會員國.

23) Caribbean Common Market, 1967년 創設, 12개 會員國.

24) Communauté Economique de l'Afrique de l'Ouest, 1974년 創設, 6개 會員國.

25) Union Douanière et Economic de l'Afrique Centrale, 1964년 創設, 4개 會員國.

濟同盟) 및 SACU²⁶⁾(南아프리카 關稅同盟) 등이 形成되어 세계 전역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表 2-1> 主要 地域經濟統合體

地域區分	地域統合體名	設立年度
유럽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EFTA(European Free Trade Area) EEC-EFTA間 自由貿易地域	1958 1960 1972
中南美	LAFTA(Latin American Trade Association) CACM(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CCM(Caribbean Common Market) Andean Group LAIA(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LAFTA에서 代替) 브라질.아르헨티나間 經濟統合	1960 1960 1967 1969 1980 1986
아프리카	PCCM(Permanent Consultative Committee of Marghreb) UDEAC(Union Douaniere et Economic de l'Afr- ique Centrale) EAC(East African Community) ECAO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ern African States) SADC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ordina- tion Conference)	1964 1964 1967 1970 1975 1980
中東 아시아 大洋洲	ACM(Arab Common Market)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 ns) RCD(Reg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호주, 뉴질랜드 FTA ACC(Arab Cooperation Council) AMA(Arab Maghreb Association)	1945 1961 1964 1981 1982 1989 1989
東歐團	CMEA(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 일명 COMECON	1949
北美	美.이스라엘 FTA 美.캐나다 FTA	1985 1989

資料：國際問題研究所，國際問題，1989.7. p.46.

註26)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s, 1969년 創設, 4개 會員國.

(2) 最近의 動向

國際經濟上에 地域主義化를 深化시키는 것은 歐洲共同體(EC)라고 할 수 있다.

EC는 지난 1958년 유럽共同市場을 發足, 域內 關稅同盟의 달성, 共同市場의 完成을 통한 유럽統合을 진전시켜 왔다. 그러나 設立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關稅部分을 제외하고는 共同市場完成에 이르기까지는 遲遠한 狀態이다. 이러한 狀況을 벗어나 共同市場完成의 障碍物을 차례로 除去하고 유럽統合을 촉진시키려는 시도가 1988년 7월 SEA(Single European Act) 즉 유럽統合議定書의 발효를 계기로 시작됐다.²⁷⁾

SEA는 오는 1992년까지 EC 域內共同市場完成을 통한 유럽統合의 意志를 강력히 반영하고 있다. 유럽統合은 EC 域內共同市場完成이란 次元을 뛰어넘어 全體 유럽의 次元에서의 統合을 意味하는 것으로 1次로 域內共同市場의 完成과 2次로 유럽 兩大經濟機構인 EC와 EFTA와의 統合, 3次로는 政治的 統合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構想이다.

이와같이 EC의 歐洲統合이 急進展되자 지금까지 範世界的 自由貿易의 主唱者였고 어떠한 地域主義에도 반대한다는立場을 취해온 美國의 두드러진 變化는 더욱 주목을 끌게 하고 있다. 즉 美國은 自國의 協商ability이 강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相對國의 市場開放을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地域主義의 經濟壘壘化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1985년에 이스라엘과 美.이스라엘 FTA協定을 締結하였고, 1988년 1월에는 캐나다와도 이와 비슷한 美.캐나다 FTA協定을 締結하였으며, 자국을 정점으로 하는 韓國, 日本, 臺灣 등과의 雙務的인 FTA協定締結을 推進중이다.²⁸⁾

註27) 서울經濟新聞, 1989, 1, 5日字.

28) 權奇成, 經濟摩擦(Economic Friction): 그 理論과 戰略(서울:東洋文庫, 1989), p.46.

한편 日本은 美國 通商政策의 差別主義性向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基本的으로는 GATT體制에 의한 多者間自由貿易協商을 支持하는 立場을 취해왔다.

최근 美國의 FTA政策에 대응하여 미·일 FTA에 관한 自體檢討作業을 推進해 오고는 있으나 雙務的 協商締結에는 비교적 消極的인 姿勢를 보이고 있으며, 中長期的으로는 美國, 日本, 캐나다, 韓國, 臺灣, ASEAN, 中國, 澳洲, 뉴질랜드 등을 포함하는 太平洋國家들과의 紐帶를 強化하고 가까운 장래에는 이 地域을 실질적인 自由貿易圈으로 發展시키려는 構想을 加速化시키고 있다.

美國, 日本, 유럽이 이처럼 地域主義化에 積極的인 자세로 나감에 따라 여타 國家들도 이에 뒤질세라 地域別로 經濟력의 創設을 시도하고 있다.

<表 2-2> 最近 美國, EC, 日本의 地域主義 比較

	美 國	E C	日 本
目的	貿易收支赤字解消 및 美國의 國際經濟上 地位 回復	유럽은 하나라는 認識과 市場擴大를 통한 產業競爭力 回復	日本을 中心으로 하는 地域分業體系의 構築 및 美國의 地域主義 對應
對象國	어떠한 交易相對國도 協商對象이 될 수 있는 開放性, 단 決定權은 美國歸屬	會員國은 西유럽國家들로 限定하는 閉鎖性	미, 일, 캐나다, 한 국, 대만, ASEAN, 호주, 뉴질랜드, 중 국 등 환태평양국가들을 주대상으로 한 폐쇄성
內容	주로 貿易自由化를 内容으로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서비스, 投資 등의 分野도 포함	貿易뿐만 아니라 金融·財政 등 經濟活動 全般의 統合, 나아가서는 政治統合까지도 指向	機能的統合을 추구하면서 自由貿易圈形成을 위한 漸進的接近方式 採擇

資料：李建雨，地域主義와 우리의 政策對應方向，產業研究院，世界經濟動向，1989.1.

第 2 節 太平洋地域主義의 登場

太平洋地域國家들의 域內 經濟協力體 構成을 위한 論議는 源淵을 보면 멀리는 戰前의 日本 植民地政策의 옹호 수단으로 제창되었던 大東亞共榮圈이나 한때 中·日·比등의 지식인 사이에 論議되었던 反植民協力運動에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戰後에는 1947년 UN傘下 機構로 發足된 ECAFE(아시아 極東經濟委員會)와 1950년에 設立된 「콜롬보」計劃이 일찍부터 域內經濟協力を 위한 研究 또는 技術訓練等의 活動을 한 바 있다. 특히 ECAFE는 그후 1966년에 ADB(아시아 開發銀行)를 發足시켰으며 1968년에는 ACA(아시아 經濟同盟)를 設立키로 決定함으로써 域內 經濟協力基盤造成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²⁹⁾ 또 東南亞地域에서는 1961년에 發足한 ASA(東南亞 聯合)가 1967년에는 政府次元의 政治·經濟協力機構로 擴大·發展하여 ASEAN(東南亞國家聯合)으로 되었다.

이밖에 集團安保機構인 SEATO(東南亞條約機構, 1954년 設立, 1977년 解體)와 ASPAC(아시아·太平洋委員會, 1966년 發足, 1972년 機能停止)이 있어 나름대로는 域內의 經濟發展과 福祉向上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經濟的인 면에서의 소위 太平洋經濟共同體에 관한 具體的인 構想은 1958년 EEC의 形成을 계기로 하여 世界的으로 地域主義가 擴散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하겠다.

EEC는 그 發足부터 그 加盟諸國이 國際經濟에서 차지하는 막중한 地位는 물론 獨創的인 經濟統合의 메카니즘에 의해 成功的으로 分業化를 進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諸國에 커다란 刺戟을 주어 왔다. 로마條約에 의하면 1960년대말 즉 過度期間 중 域內의 勞動, 資本 및 商品의 이동을 自由化하는 이른바 共同市場이樹立되었으며 加盟諸國間의 經濟政策의 調整 내지 統一을 試圖함으로써 經濟同盟의 기틀을 이루하자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

註29) PBEC 韓國委員會, “太平洋經濟協力과 ASEAN”, 1987, 12, p.19.

라 과거에 加盟諸國의 植民地었던 國家들과 準會員國協定(association convention)을 締結함으로써 대규모의 EEC團을 形成하였다.³⁰⁾

그리고 1960년대 들어서 經濟統合의 試圖는 특히 전술한 바 아프리카, 中南美등의 後進地域으로 擴散되어 國際經濟關係의 하나의 特徵을 이루었다. EEC의 發足과 그 成功的인 分業化의 進展 그리고 이에 刺戟을 받아 각 地域에서 經濟統合을 통하여 分業化를 促進하는 가운데 太平洋地域에 있어서도 經濟共同體 形成에 관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中盤에 들어서면서 이 地域의 經濟協力問題가 日本내에서 거론 되기 시작하여, 1967년 先進 5個局 실업인을 會員으로 하는 太平洋經濟人協議會 (PBEC)가 成立되기 까지는 對外的인 호응을 얻지 못한채 日本人들 사이에서만 그 論議가 이루어졌다.³¹⁾ 이같이 日本이 太平洋地域經濟協力問題에 먼저 관심을 표명한 것은 戰後 지속적인 高度成長을 달성한 日本이 源資材供給으로서의 地域國家의 重要性과 輸出市場으로서의 太平洋團의 重要性을 認識하였을 뿐만 아니라 太平洋經濟團의 성숙과 함께 域內國家間의 相互依存關係 및 競爭關係가 深化되면 相互協力과 調整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地域協力機構가 日本으로서는 必要하다고 判斷하였던 것이다.³²⁾

여기에 英聯邦國家로서 英國의 經濟沈淪, 1967년 英國의 EC加入 등의 이 유로 英國과의 經濟關係가 소원해진 濟洲가 太平洋地域으로 關心을 돌리면서 太平洋協力論議는 國際化되게 되었다. 그 결과, 日本과 濟洲의 實業人們

註30) EEC는 1964년 18개 아프리카諸國과 약운데協定을 締結하였는데, 同協定은 1975년 2월 로메協定으로 擴大 發展하였으며 1979년 10월에 調印된 제 2차 로메協定 參加國은 EEC會員 9個國과 아프리카 42個國, 카리브沿岸 9個國, 太平洋沿岸 6個國이다.

31)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Issues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983, p.5 이하; 韓國政治學會, "太平洋地域 經濟協力體構想에 관한 研究", 1983 ; OECD, "Pacific Basin Economic Cooperation", 1983, p.5. 參照.

32) 楊秀吉, "太平洋協力論議의 展開와 우리나라의 對應", 韓國開發研究, 1983, 겨울호.

을 주축으로, 域內의 貿易 및 投資에 관한 問題를 논의하고 民間次元의 協力增進을 目的으로 한 PBEC를 設立, 1968년에는 先進 5個國이 澳洲 시드니에서 第 1 次 總會를 갖기에 이르렀다.³³⁾

域內實業人們이 PBEC를 중심으로 太平洋協力論議를 계속해 오는 동안, 域內學者들은 太平洋貿易開發會議(PAFTAD)를 중심으로 協力論議를 진전시켜 왔다. PAFTAD는 1965년에 太平洋自由貿易圈(PAFTA) 結成,³⁴⁾ 을 提案한 바 있는 日本의 고지마(小島 清)教授가 日本政府의 支援을 얻어 1968년에 1次會議를 개최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 까지 年例的으로 개최되어 域內經濟學者들 간의 討議의 場이 되어왔다. PAFTAD에서의 經濟問題 討議는 域內經濟學者들 간의 學術交流 뿐만 아니라, 太平洋經濟協力의 概念을 보급시키는데 크게 貢獻하였다.³⁵⁾

한편 고지마教授에 의해 提案된 PAFTA案이 肯定的인 반응을 얻지 못하자 中間段階의 한 形態로서 同 地域내 經濟的 與件을 감안한 太平洋貿易開發機構(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案이 1979년 등장하였다.³⁶⁾ 또한 日本에서는 1979년부터 大平首相의 政策諮詢機構인 「環太平洋研究그룹」을 발족시켜 연구한 결과 1980년에는 「環太平洋連帶」라는 이름의構想案을 提示하였다.³⁷⁾

또 1980년에는 澳洲의 M. 프레저 首相과 日本 大平首相이 합의한 바에 따라 非政府次元의 太平洋共同體세미나(Pacific community seminar)를 열고 그 구체적 결실로서 太平洋經濟協力會議(PECC)를 발족시켰다.

註33) PBEC 韓國委員會, 前揭書, p.12.

34) K. Kojima, Japan and a Pacific Free Trade Area(McMillan: 1971).

35) 金宇澤, “太平洋經濟協力의 展望과 意義”, 世宗大 國際經濟研究所 研究論叢 第6輯, 1986, 12, pp.37-38.

36) P.A. Drysdale and H.T. Patrick, “Evaluation of a Proposed Asian-Pacific Regional Economic Organization”, Australia-Japan Economic Relation Project Research Paper, No.61, Canberra, July, 1979.

37) 環太平洋連帶研究グループ, 環太平洋連帶の 구상, 1980, 8.

이와 같이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은 세계적인 地域主義의 추세와 더불어 그 輪廓을 드러내고 있다.

第3章 太平洋經濟共同體構想의 必要性과 諸構想案

第1節 太平洋地域諸國의 特性

1. 一般概況

<表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太平洋地域의 總面積은 世界總面積 135,830千Km²의 23%에 해당하는 31,313千Km²를 占有하고 있으며, 大洋을 포함하면 전 지구面積의 35%를 차지하는 광활한 地域이다. 또한 人口면에 있어서도 同地域의 總人口는 773百萬名으로 世界總人口 4,944百萬名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어, 同地域은 世界最大市場을 形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表 3-1> 太平洋地域諸國의 人口 및 面積

	人 口	面 積
	(百萬名)	(千Km ²)
(先進工業國)		
美 國	243.0	9,363.1
캐나다	25.6	9,976.1
日 本	121.8	372.3
오스트레일리아	16.2	7,686.9
뉴질랜드	3.2	268.7
(後進國)		
韓 國	41.9	98.5
臺 澳	18.5	36.0
香港	5.6	1.0
菲 蘭	57.4	300.0
타일랜드	53.6	514.0
말레이지아	16.6	329.8
싱가폴	2.6	0.6
인도네시아	170.2	1,904.4
파푸아뉴기아	3.5	461.7
太平洋沿岸合計	773.0	31,313.1
世界總計	4,944	135,830.0

資料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88.

또한 太平洋地域諸國들의 經濟規模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太平洋地域諸國은 1960년 이후 비교적 높은 經濟成長率을 보여왔으며 특히 韓國, 싱가포르, 日本등의 工業國家에서 급속한 成長을 示顯하였다. 즉, 世界經濟가 同時的 擴大를 持續한 1960년대 중 OECD國家들의 年平均 成長率은 5.0%를 示顯한 데 비해 아시아 NICs의 經濟成長率은 8.6 - 10.0%를 記錄하였으며 SAEAN의 경우에도 인도네시아를 除外하고는 先進國의 平均水準을 上廻하였다. 또한 世界 대부분의 國家가 景氣後退를 경험하였던 1970년대 및 그 이후에도 아시아 NICs와 ASEAN諸國들은 계속해서 높은 成長率을 나타내고 있다.(<表 3-2> 參照)

또한 世界經濟에서 점하는 太平洋地域經濟의 比重이 증대됨에따라 太平洋地域의 世界經濟에 대한 影響力도 점차 擴大되어 왔다. 먼저 GDP의 경우 太平洋地域의 世界에 대한 比重은 1970년 46.6%, 1980년 41.2% 그리고 1986년에 52.2%를 나타내어 世界 總 GDP의 절반을 上廻하고 있으며, 太平洋地域의 輸出이 世界輸出에서 차지하는 比重 또한 1970년 29.9%, 1980년 31.1% 그리고 1987년 37.5%로 꾸준한 增加를 나타내고 있다.

또 1人當 GNP에 있어서도 1986년 현재 美國이 17,500달러로서 가장 높고, 다음이 日本으로 13,860달러, 濟洲 11,910달러, 캐나다 11,400달러, 뉴질랜드 7,110달러의 순이다. 이들 先進 5個國은 太平洋地域에서 高所得國家들이며, 60,70년대에 이어 油價波動으로 인하여 國家별로 다소의 기복을 보이고는 있으나 꾸준하게 經濟成長을 持續하는 國家들이다.(<表 3-3> 參照)

이밖에 韓國을 비롯한 아시아 新興工業國家들은 보다 빠른 속도로 經濟成長을 하는 國家들이나 아직 1人當 GNP에 있어서는 先進諸國에 비하여 매우 낮은 형편이며, ASEAN諸國은 1人當 GNP가 1,000달러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 低所得 國家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經濟豫測報告書는 東아시아의 新興工業國과 ASEAN諸國이 2,000년까지 높은 成長 潛在力의 덕택으로 高度

成長을 持續함으로써 國際經濟에서 새로운 势力으로 浮刻될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經濟成長으로 이 地域 經濟가 世界經濟上에 急浮上하고 있는 것이다.

〈表 3-2〉 太平洋地域國家들의 實質 GDP成長率 推移

(單位 : %)

	60년대	70년대	80년대(1980-87)
美 日 國 本	4.1 11.1	2.9 6.1	2.5 3.7
韓 臺 洪 紅 中 國 加 巴 菲	8.6 9.6 10.0 9.2	9.1 8.3 9.9 9.1	8.8 7.2 6.9 5.8
泰 國 馬來西亞 印度尼西亞 菲 蘇 菲	7.9 — 3.8 5.2	6.9 8.0 8.0 6.3	4.2 5.0 - 0.1 0.3
新 加 菲 豪 洲 紐 蘭 德	5.2 5.1 3.3	4.2 3.3 2.8	2.7 3.0 2.3
E C O E C D	4.6 5.0	2.9 3.2	1.8 2.5

資料 : UN, Yearbook of National Accounts.

<表 3-3> 태평양 주요국가 GNP현황

國 名	'86一人當GNP(\$)	'86 名目GNP(억\$)
美 國	17,500	42,217
캐나다	11,400	3,617
豪 洲	11,910	1,904.7
뉴질랜드	7,110	233
日 本	13,860 23,358 ('88)	19,662 28,633 ('88)
(小計)		76,604.7
인도네시아	500	8,211
말레이지아	1,850	295
필리핀	570	318.2
싱가폴	7,410	191.6
泰 國	810	424.4
(ASEAN 計)	-	2,050.3
韓 國	2,290 (4,040 '88)	953 (1,692 '88)
홍콩	6,720	373.6
파푸아뉴기니아	690	24.7

資料 : UN, Int'l Trade Statistics Yearbook, 該當年度.

2. 太平洋地域諸國의 性格과 特性

太平洋地域은 地域的으로 크게 亞洲太平洋地域과 美洲太平洋地域으로 大別할 수 있고, 이를 다시 亞洲太平洋은 ASEAN諸國들이 위주가 되는 東南亞諸國과 中國, 臺灣, 韓國, 日本의 東北亞諸國 그리고 濟洲, 뉴질랜드 등의 太平洋島嶼諸國으로 構成되고, 美洲太平洋地域은 美國과 캐나다, 中南美國家들로 構成되어 있다.

이와 같은 太平洋地域을 構成하는 國家들의 構成에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몇가지 사실은 地理的으로 광활하고 또한 太平洋地域國家들간의 人種的, 文化的, 歷史的 多樣性 그리고 政治上의 制度와 發展段階가 相異한 점, 經濟規模 및 構造, 經濟發展段階가 相異한 國家들로 構成되어 있어 여타 地域과는 特異한 性格을 지니고 있다.

즉, 政治的으로는 自由民主國家와 共產國家, 文化的으로는 東洋文化와 西洋文化가 共存하고 있으며, 經濟發展段階로 볼때에는 美國, 日本, 캐나다, 濟洲, 뉴질랜드 등의 先進國과 韓國, 香港, 싱가포르, 臺灣의 新興工業國 그리고 ASEAN, 中國, 中南美 등의 開途國이 共存하고 있다. 또 產業, 經濟構造面에서는 美國, 캐나다, 濟洲 등과 같이 主要資源生產國이면서 高度產業國家, 日本과 같이 資源輸入加工型 高度產業國家, 아시아 NICs와 같이 資源輸入加工型 中進工業國, 그리고 ASEAN 및 일부 中南美國家와 같은 開發途上의 資源生產國이 共存하고 있다.

太平洋地域經濟圈이 지니는 이러한 性格은 여타의 地域協力體들이 共通된 文化, 歷史的 背景과 經濟發展段階의 類似性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相互補完關係에 따른 經濟的 利益關係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經濟發展段階 및 構造의 多樣性에 따른 각국간 比較優位構造의 선명한 차이로 產業構造上의 相互補完性을 높일 수 있는 可能性이 높다고 하겠다.¹⁰

<表 3-4> 太平洋地域諸國의 經濟的 特性

그룹	國 家	特 性		產業發展類型(先進國과의 關係)
I	美 國	經濟大國	資源過消費	水平分業(產業間, 產業內特化)
	日 本		資源貧國	
II A	豪洲, 캐나다, 뉴질랜드	資源大國	高所得國	垂直分業, 一部水平分業
II B	인도네시아	資源富國	低所得國	垂直分業
III	韓國, 싱가포르	新興工業國	資源貧國	水平分業(產業間, 產業內特化)
IV	말레이지아, 필리핀, 泰國	1次產品生產國		垂直分業 (一部 產業間 特化)

資料：野村總合研究所，國際環境の變化 日本の對應-21世紀への提言，
1977, 12, p.258.

이러한 相互補完的 經濟關係에 힘입어 太平洋地域은 1960년대 이후 여타
地域보다 相對的으로 높은 經濟成果를 持續함으로써 世界經濟의 새로운 成
長軸으로 浮上하여 왔다. 특히 太平洋地域 내의 아시아 NICs 및 ASEAN의 경
우 다른 地域에 비해 일찍부터 輸出을 주축으로 한 工業化 政策을 推進함으
로써 괄목할 만한 經濟成長을 이룩하였다.

註1) 李建雨, “世界貿易自由化와 亞·太地域協力”, 世界經濟動向, 1989, 8,
p.70.

第 2 節 太平洋經濟共同體 形成의 必要性

1. 貿易의 地域集中

太平洋地域 國家들이 지난 相互補完的 貿易構造에 따라 域內 貿易活動이 서로 밀접한 관리를 갖게 되면서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 域內貿易의 集中이 加速化 되고 있다.²⁾

<表 3-5>로부터 域內 각국의 地域內貿易依存度의 推移를 보면, 우선 모든 國家들의 域內貿易依存度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높아지고 있는 傾向을 알 수가 있다. 그 가운데 특히 ASEAN의 경우는 太平洋地域에의 貿易依存度가 1980년대에 70%를 上廻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美國과의 貿易이 世界 最大의 單一國家間交易量을 보이면서 이를 포함한 太平洋地域의 貿易依存度가 거의 80%에 가깝다. 그 외에도 新興工業國들의 太平洋地域 貿易依存度가 60%를 上廻하고 있고, 美國, 日本도 50% 前後로 나타나고 있다.

太平洋地域은 貿易을 통한 강한 相互依存關係를 形成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貿易關係를 통하여 域內 一國의 經濟構造의 變化는 곧 域內 각국에 波及되어 감으로써 貿易을 통한 域內 相互依存關係가 太平洋地域 經濟發展의前提로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太平洋地域의 工業化過程이 域內 先進國으로부터 NICs로, 그리고 다시 ASEAN으로 段階的으로 波及되어 가고 있는데 域內 각국의 產業構造, 貿易構造의 相互依存關係는 더욱 深化되었으며, 貿易에 의한 財貨의 흐름 뿐만 아니라 域內 直接投資 등 資本, 技術의 移轉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同 地域에서 이러한 相互依存關係를 管理, 調整할 必要性이 高潮되고 있는 것이다.

註2) 沈承鎮, “亞·太地域經濟의 域內貿易誘發構造 및 開放性 檢證”,
世界經濟動向, 1990, 2, PP. 2-3.

<表 3-5> 太平洋地域內 각국의 域內貿易依存度

(單位 : %)

		NICs	ASEAN	日 本	美 國	太 平 洋 地 域
NICs	1981	7.5	8.2	17.4	21.2	58.8
	1987	7.8	6.3	18.5	26.3	63.0
ASEAN	1981	16.4	3.8	29.5	16.7	70.3
	1987	19.4	4.5	25.5	18.0	71.6
日 本	1981	11.3	10.1	-	21.8	50.6
	1987	16.7	6.8	-	30.6	61.3
美 國	1981	6.6	3.5	12.2	-	40.3
	1987	9.8	2.6	17.2	-	48.5
캐나다	1981	1.7	0.4	4.9	64.4	72.3
	1987	2.7	0.6	5.8	68.7	78.4
豪 洲	1981	9.1	4.6	22.5	16.5	58.8
	1987	11.6	3.9	21.7	15.8	59.4
뉴질랜드	1981	6.6	4.8	15.2	15.3	60.5
	1987	6.7	2.5	17.5	15.4	61.9

資料: IMF, DOT, 각년.

2. 競争의 深化

太平洋地域 貿易擴大와 더불어 貿易摩擦도 激甚하게 進行되어 왔다. 美國과 日本間의 摩擦이 發生하고 같은 形態의 摩擦이 美國과 아시아 NICs間, 日本과 아시아 NICs間에도 波及되고 있다.

貿易摩擦은 美國과 日本, 아시아 NICs와의 成長率 隔差와 貿易不均衡에 의해 發生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보다 빠른 속도로 工業化를 이루려는 國家가 新技術 및 性能좋은 設備을 이용하여 競争力이 強化되었기 때문이다. 日本은 1960년대의 高度成長期에 여러가지 新規產業을 輸出產業化 하여 主要市場인 美國에서 國內生產者와 競合하게 됨으로써 美國으로부터 輸出規制를 要請받고 纖維에 이어, 鐵鋼, 家電製品, 乘用車, 產業機械 등의 分野에서

貿易摩擦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美.日間의 貿易摩擦은 個別產業分野 뿐만 아니라 美.日間의 총체적인 關係에 까지 미쳤다. 이것은 美.日間의 貿易收支不均衡에 의해 象徵되고 있다. 美國의 對日赤字는 1981-82년에 120-130억 달러였으나, 1985년에는 495억, 1986년에는 586억 달러로 擴大되었다. 이러한 美.日間의 貿易摩擦의 主要因은 美國은 積極的인 財政政策을 實施하여大幅의 輸入擴大를 계속한데 비하여, 日本은 緊縮政策을 維持하고 內需擴大를抑制하였기 때문에 日本은 大幅的인 對美 貿易黑字를 記錄하였고, 이에 따라 美國議會와 政府는 國際收支不均衡을 시정토록 對日 要求를 強化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貿易摩擦은 美.日間에서 뿐만 아니라 美國과 아시아 NICs 사이에서도 發生하고 있다. 즉 美國의 輸入擴大는 日本뿐만 아니라 아시아 NICs로부터의 輸出도 급증하여, 1986년에는 韓國과 臺灣의 對美 貿易收支黑字의合計는 21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兩國은 美國이 日本에 要求한 것과 같은 美國으로부터의 對美 輸出規制, 內需擴大, 市場開放, 換率調整 등의 壓力を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 NICs와 日本間에도 貿易摩擦이 發生하고 있다. 1986년 한국의 對日 貿易收支赤字는 52억 달러, 臺灣은 32억 달러로 兩國 공히 日本에 대하여 市場開放을 통한 輸入擴大를 要求하고 있다. 이러한 韓國과 臺灣 兩國의 對日 貿易收支赤字현상의 原因은 兩國의 新規產業이 필요로 하는 機械設備 및 中間材를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에 依存하고 있고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完製品은 美國으로의 輸出로 연결되어 있는, 즉 兩國이 對美 輸出이擴大됨에 따라 對日 輸入이 擴大되는 貿易構造에 그 原因이 있다고 할 수 있다.³⁾

註3) 山澤逸平, “21世紀의 太平洋協力”, 韓國貿易協會, 1988, 11, pp.73-75.

ASEAN諸國도 工業化가 進展됨에 따라 현재의 아시아 NICs가 美國, 日本間에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形態의 貿易摩擦이 激化되는 傾向이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太平洋地域諸國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貿易摩擦을 緩和시키기 위해 서도 經濟共同體 形成의 必要性이 強調되고 있다.

3. 資源協力의 效率化⁴⁾

太平洋地域諸國의 활발한 經濟成長持續으로 역내각국은 經濟各分野에서의 技術革新推進, 大量生產, 大量消費, 重化學工業의 다양한 發展등에 의하여 鑽物 및 에너지資源의 需要가 더욱 增大하게 되었으며, 또한 새로운 鑽物資源이 要請되고 利用資源도 다양해지는 등 全般的으로 主要資源에 대한 消費가 급격하게 增加하게 되었다.

한편 太平洋地域에서의 資源需要增大에 副應하여 金, 銀 및 안티몬 등 枯渴化 傾向을 보이고 있는 일부 鑽物을 제외하고는 域內諸國에의한 鑽物 및 에너지 資源의 生產도 크게 增大되어 왔다. 그러나 環太平洋地域에는 막대한 鑽物資源이 埋藏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表 3-6>과 같이 主要資源賦存의 地域的 偏在性이 심각하여 鐵鑽石과 보오크사이트의 경우 域內總埋藏量의 약 40-80%가 濟洲에 賦存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石炭 및 原油의 경우는

<表 3-6> 國別 資源埋藏量의 域內 占有率

(單位 : %)

資 源 別	主要 賦存國 (域內占有率)			
鐵 鑽 石	濟 洲	(39.7),	캐나다	(30.3)
니켈 鑽 石	캐나다	(34.3),	필리핀	(22.7)
朱 銅 鑽 石	泰 國	(39.0),	말레이지아	(33.0)
보오크사이트	美 國	(52.9),	캐나다	(18.8)
憐 重 原 石	濟 洲	(84.2),	인도네시아	(14.7)
	美 國	(87.0),	濟 洲	(13.0)
	캐나다	(35.7),	美 國	(27.4)
	美 國	(48.1),	캐나다	(22.4)
	美 國	(58.1),	캐나다	(28.3)

資料 : US.Bureau of Mines, Mineral Commodity Profiles 1985
 Petroleum Economist 1985.9
 動力資源研究所, 資源總管 1985에서 作成.

註4) 韓國產業銀行, “環太平洋經濟協力體制 構築方向: 資源 및 資本協力を 中心으로”, 1986, 12, pp.13-15.

50-60%가 美國에, 니켈礦石 및 重石의 경우도 약 35%가 캐나다에 集中埋藏되어 있는 實情이다.

이에 따라 主要資源의 生產도 역내일부국가에 集中되고 있어 이들 資源의 價格仰騰 및 供給不安定이 太平洋諸國의 經濟成長持續에 커다란 制約要因이 될 수 있는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친 油價波動으로 심각한 經濟成長銳化를 경험한 바 있는 太平洋各國이 主要資源에 대한 安定的인 供給確保의 重要性을 크게 認識하고 있으며, 더우기 太平洋地域에는 濟洲,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등의 資源純輸出國과 資源은 貧弱하나 많은 資本과 技術을 保有하고 있는 日本 및 相對的으로 熟練勞動力이 豐富한 東北亞新興工業國들이 共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地域國家間相互資源協力의 重要性이 더욱 高潮되고 있다.

4. 多角的 協力의 推進

70년대초에 인플레등의 國內經濟問題 惡化와 제1차 石油波動을 겪으면서 擡頭된 先進國들의 이른바 新保護主義는 70년대말 이후의 장기불황과 開發途上國의 浮上으로 인한 產業調整 壓力下에 近者에 다시 強化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先進國들은 多者間纖維協定(MFA)에 의한 纖維輸入쿼터의 強化, 각종 自律輸出規制의 強化, 세이프가드의 빈번한 發動등을 통하여 여러가지 非關稅貿易障壁을 強化하기에 이르렀다.⁵⁾

이와 같은 保護貿易主義의 特徵은 그 根源이 유럽이며 最近 美國도 公正貿易을 표방하며 保護貿易主義 색채를 띠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保護貿易主義 趨勢는 결국 世界交易量을 減少시키고 世界景氣後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모두 알고 있으며 美國과 日本도 基本적으로는 自由貿易을 指向하

註5) 安承喆, 前揭書, p. 465.

고 있다. 그러나 만약 保護主義가 深化된다면 輸出指向的 經濟成長政策을 택한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의 經濟成長과 工業化政策은 심각한 타격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太平洋地域國家들은 유럽國家들과는 對照的으로 保護貿易主義의 沮止 내지 緩和를 渴求하고 있다.⁶⁾

또한 域內 各國은 經濟問題의 解決方式으로 주로 二國間協商方式을 採擇하고 있으나 이러한 方式은 限界가 있으며 非效率的이다.

따라서 兩國 사이의 經濟關係 뿐만 아니라, 諸國 사이에 經濟協力이 절실히 要望되고 있다.

註6) 楊秀吉, 前揭書, p.72.

第3節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에 關한 諸構想案

1. PAFTA案

1967년 日本의 기요시 고지마(小島清)教授는 日本의 官邊에서 일어나고 있던 地域協力體 構想에 대한 關心을 集約하여 이른바 PAFTA案⁷⁾을 提案한 바 있다. 이 案은 太平洋地域 先進 5個國(美國, 캐나다, 日本, 濟洲, 뉴질랜드)을 加盟國으로 하여 加盟國間에 關稅를 撤廢한다는 一種의 “制度的”統合(Institutional integration)案 이었다. 이것은 域內先進國間의 相互貿易增進機構인 동시에 域內의 開發途上國들의 經濟發展과 貿易擴大를 위한 地域單位의 對開發途上國 支援機構이다.

고지마教授는 EEC의 域內貿易의 比率이 1958년의 30%에서 1965년의 43.5%로 增加한 반면, 太平洋沿岸 先進 5個國의 域內貿易은 같은 기간 이와 비슷한 水準인 1958년의 32.5%에서 1965년의 37.3%로 增加하고 있기 때문에 關稅의 完全撤廢를 통한 經濟協力이 可能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또한 PAFTA案에서 말하는 對開途國 市場移轉은 開途國으로부터의 農水產物 및 勞動集約的 工產品 輸出에 대한 需要를 確保·擴大하여 주고, 아울러 이들 部門에서 開途國의 生產能力을 늘려주기 위한 資本 및 技術協力を 提供하는 것을 말한다. 開途國의 輸出에 대한 需要를 擴大하는 方法으로는 農水產物 및 勞動集約的 工產品에 대한 先進國 生產 및 輸出의 자제와 對開途國 市場開放, 그리고 이에 相應하는 先進國內 產業構造調整이 提示되고 있다. 이처럼 PAFTA案은 太平洋地域 先進國相互間의 貿易政策 및 太平洋地域開發途上國에 대한 貿易政策의 共同調整을 主要 經濟協力 內容으로 하는 先進國 為主의 地域經濟協力體이되, 특히 太平洋 域內의 貿易增進과 域內 開途國과 先進國 사이의 均衡있는 經濟發展을 政策目標로 하고 있는 것이 特

註7) Kiyoshi kojima, Japan and New world Economic Order(London: Croon Helm Ltd., 1977), p.172.

徵이다.

고지마教授의 이 構想은 1960년대에 있었던 主要 先進유럽國家間의 EC結成 및 EC내의 關稅撤廢 移行에 대한 反應이었다. 즉 유럽에서의 對內指向的 經濟블럭의 形成으로 인한 貿易 및 投資上의 轉換(Diversification)을 가능한 만큼 相殺하고 나아가서는 範世界的 貿易自由化를 推進하기 위한 Momentum을 確保하자는 것이 그 動機인 것이다. PAFTA構想의 底邊에는 世界經濟의 兩大 블럭화의 構想이 깔려 있었으며 차후 EC의 擴大(1973)와 로메協定(1975) 등을 통한 유럽經濟블럭의 擴大를豫想하고 兩大 自由貿易블럭의 병존이 비록 排他性을 갖더라도 장차의 範世界的 貿易自由化 움직임으로連結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構想은 현재로서는 過慾的이며 現實性이 缺如되어 있다고 評價되며, 고지마教授 자신도 여러가지 理由로 時機尚早라고 判斷하였다.⁸⁾

첫째, 關稅의 完全撤廢는 각국내의 企業에 큰 副作用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消費者들은 關稅撤廢로 값싼 輸入品을 購入할 수 있으나 國內企業에 단기적으로 미칠 影響은 클 것으로豫想되었다.

둘째, 5개 先進國家들도 關稅의 完全撤廢에는 一律的으로 贊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工業品을 輸出하는 日本의 경우는 PAFTA創設로 막대한 利益을 얻을 수 있으나, 반면에 濟洲와 같은 資源을 供給하는 國家는 關稅撤廢로 별로 利益을 얻지 못할 것으로 判斷되었다.

셋째, 域內 5個先進工業國家間의 關稅撤廢는 域內開發途上國家의 交易을 增大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豫見되었다. PAFTA는 또하나의 '富國들의 모임' (rich men's club)으로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憂慮를 낳았

註8) Kiyoshi kojima(ed.),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Papers and Proceeding of the First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Conference, (Tokyo:Japan Economic Research Center, 1968); Heinz Aradt, "PAFTA : An Australian Assessment" Intereconomics, No.10(1967), pp.271-276.

다.

이상과 같은 이유를 받아들인 고지마教授는 PAFTA結成이 時機尚早 일진대 당면한 課題는 이의 조기실현을 促進하기 위한 與件造成에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當面課題의 內容을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域內 先進國의 對域內開途國 資本移轉을 增大시킨다.

둘째, 先進國間의 重化學工業內 水平分業과 效率的인 域內 資源 및 中間材生產과 交易을 促進시킨다.

세째, 太平洋地域內 開途國의 利害關係의 考慮에 따른 先進國內 農產品生產을 調整한다.

네째, 太平洋地域內 開途國에게 輕工業製品市場을 移轉하기 위한 先進國內의 投資調整 및 市場開放을 促進시킨다.

다섯째, 先進國의 對域內開發途上國援助政策을 調整한다.

고지마教授는 또한 이러한 課題의 實踐을 위한 첫 段階의 制度化作業으로서 太平洋 先進 5個國이 相互貿易에 대한 貿易自由化 規約, 相互 投資活動에 관한 規約, 對開途國援助 및 貿易政策 規約 등 3個規約을 採擇 춘수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貿易, 投資 및 援助의 3分野에 걸친 3개 委員會로 構成되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類型의 太平洋貿易開發機構, 즉 OPTAD를 結成할 것을 提案하였던 것이다.⁹⁾

註9) 洪文信, “아시아·太平洋 經濟統合의 效果分析”, 產業研究院, 1984, p. 9.

2. OPTAD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小島 清의 PAFTA案이 대부분의 關聯 對象國으로부터 否定的인 反應을 보임에 따라 이에 따르는 過度期的 段階로서 日本의 大來佐武郎, H.T.Patrik 등 많은 學者들의 參與로 作成된 OPTAD案이 擡頭되었다.¹⁰⁾ 그 후에 美國 國會의 위촉에 따라 예일大學의 H.T.Patrik, 호주國立大學의 P.Drysdale兩教授의 研究가 있었고, 1979년 7월에 그 具體的인 構想이 提案되었다. 이 案은 日本의 고지마教授가 提議한 「太平洋貿易·援助·開發機構」(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id and Development:OPTA D)案을 보다 具體化 시키고 發展시켰으며 美國의 狀況에 다소 變形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Drysdale-Patrick의 報告書를 토대로 OPTAD案을 分析하기로 한다.¹¹⁾

드라이스데일, 패트릭의 OPTAD構想은 다음과 같은 域內外 變化에 대한 反應이었다. 우선, 日本經濟力의 伸長은 아마도 1960-70년대 太平洋地域에서 가장 현저했던 현상인 바 이에 따라 資源과 식량, 그리고 勞動集約的 工產品에 대한 日本의 需要가 급증하여 왔고 또한 域內資本과 技術의 移動도 활발하여졌다.

둘째, 對外指向的 經濟發展戰略 및 日本의 成長에 힘입어 東北亞 및 東南亞의 開發途上國들이 놀라운 貿易伸張 및 工業化를 이룩하였다.

셋째, 西歐의 經濟沈淪로 인하여 域外市場의 活力이 低下되고 있다.

고지마教授의 OPTAD構想이 域外의 變化에 대한 對應이었다면 드라이스데일, 패트릭의 OPTAD는 주로 域內의 變化, 특히 相互依存의 深化에 대한 反應이었다.

註10) L.B.Krause and Sekiguchi(ed.), Economic Interaction in the Pacific Basin(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0). 參照.

11) Drysdale and Patrick, op.cit., pp.3-37 參照.

이 案의 具體的 目的是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첫째, 友好的인 분위기 아래 域內國家間의 높은 相互依存度로 인하여 蒙起되는 摩擦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한다.

둘째, 域內開途國에 대한 援助와 投資를 促進함과 동시에 이들과 域內先進國間의 關係를大幅 改善한다.

셋째, 太平洋地域의 各國이 域內에서 보다 地域的인 經濟協力を 追求하거나 또는 인근 共產國과의 關係增進을 追求할 경우 이러한 努力を 뒷받침하여 줄 수 있는 틀과 背後 紐帶를 마련하여 준다.

드라이스데일, 페트릭의 OPTAD案은 具體的으로 6個에 불과한 專門委員會를 예시하고 있다. 이를 專門委員會는 會員國의 政府官吏 및 民間專門家들로構成되며 그 任務는 高次元의 政治的 協議課程을 거쳐 委任되는 特定政策課題에 관하여 情報와 아이디어를 交換하고 나아가서는 政策協商을 推進하는 것이다.

드라이스데일, 페트릭이 提示한 6個專門委員會의 機能은 아래와 같다.

① 自由, 公正貿易 : 否定 및 不公正行爲를 規制하고 各國政府의 自由公正貿易保障能力을 强化하여 주는 企業行爲規約 開發.

② 貿易構造調整 : 域內國家間 比較優位의 變化에 대처하여 產業構造調整을 圓滑히 하고 市場開放을 維持하도록 함.

③ 地域開發金融 : 域內開途國에 대한 先進國資本의 供給이 圓滑히 維持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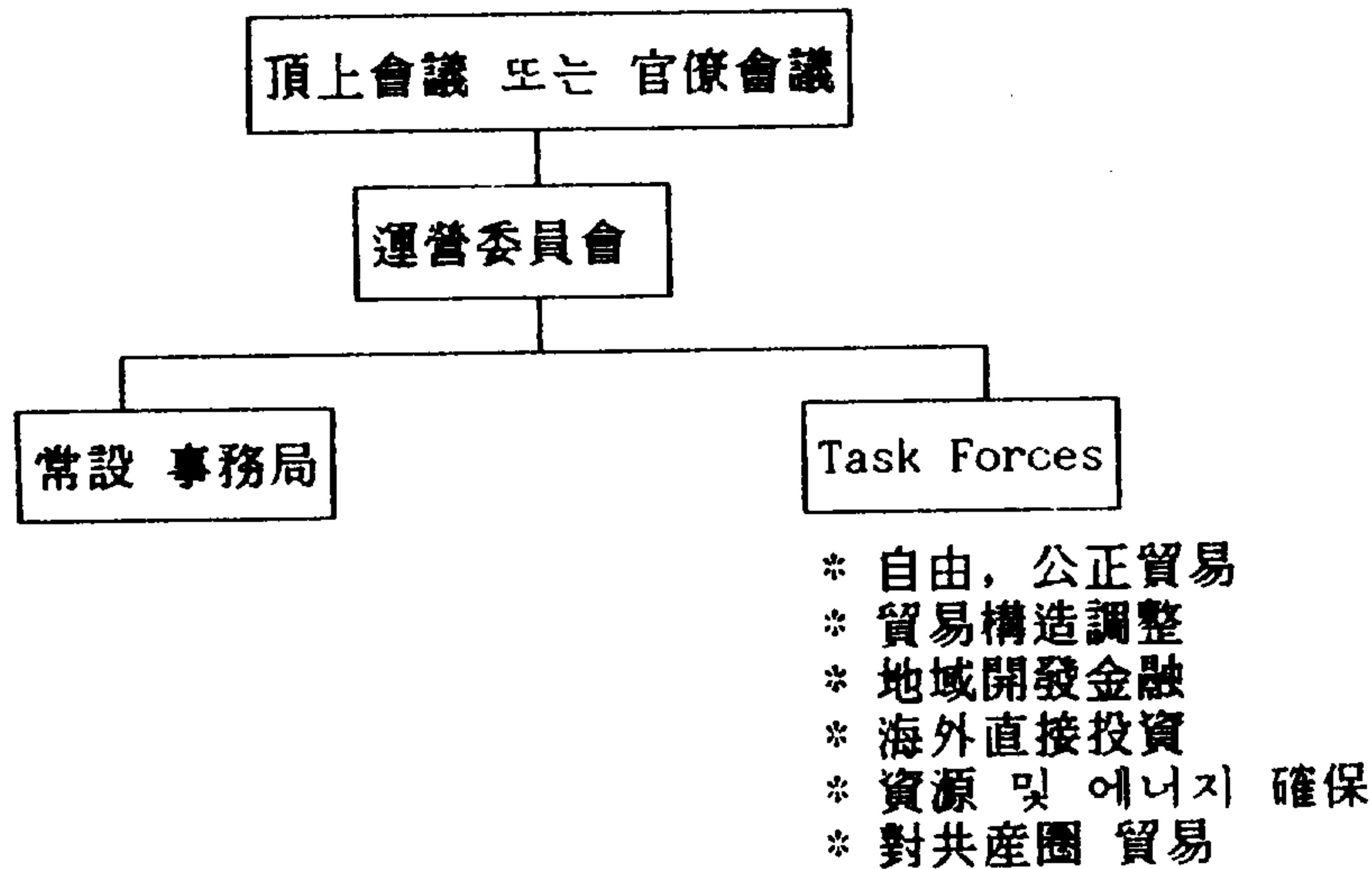
④ 海外直接投資 : 外國人直接投資規約制定 등을 통하여 投資國과 被投資國兩側의 利益을 保護함과 동시에 先進國間의 公評한 投資機會를 保障하도록 함.

⑤ 資源 및 에너지 確保: 域內國家相互間의 에너지 安定供給協力を 增進하고 域內의 天然資源 및 에너지 政策에 관련된 問題를 論議하며 域內開途

國을 위한 STABEX(一次產品輸出所得安定化計劃)의 導入 檢討.

⑥ 對共產圈貿易 : 開途國의 域內共產國家와의 貿易에 관한 協議 및 調整推進.

<圖 3-1> OPTAD의 組織 및 活動分野



OPTAD案은 초기 會員國으로 自由開放的인 市場經濟體制 原則을 遵守하는 國家들에 一次的인 會員國의 自格을 부여하고 있다.

즉 太平洋沿岸 5個先進工業國(美國·캐나다·豪洲·뉴질랜드·日本), ASEAN 5個國(말레이지아·필리핀·泰國·싱가폴·인도네시아), 아시아 新興工業國인 韓國·臺灣·홍콩 및 西南太平洋의 파푸아 뉴기니아 등 14個國이다.

그러나 OPTAD는 臺灣과 홍콩은 읍저버자격으로 參席하는 것이 複雜한 外交問題을 解決하는 하나의 方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經濟協力機構로서 排他性이 없으므로 앞으로 太平洋沿岸의 中南美諸國, 印度·파키스탄·스리랑카 등의 南아시아諸國 나아가서 中國·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蘇聯 등의 社會主義國家들에 대해서도 門戶를 開放해야 한다고 하였다.

美國議會의 關心과 OPTAD案의 發表는 지금까지 太平洋地域의 協力問題에

별로 關心이 없었던 國家들도 큰 關心을 갖게하는 刺戟制가 되었으며 많은 學術會議를 유도하는 結果가 되었다.

이러한 드라이스데일, 페트릭의 OPTAD의 경우에 있어서 問題點은 그러한 機構가 政策의 調和라는 一般的인 선을 追求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構想은 가시적인 惠澤을 수반하는 機能的 協力機構에 비하여 說得力과 呼訴力이 부족한 것이 問題이다. 다시말해서 그 자체로서는 쉽사리 實踐될 수 없는 長期課題로歸結되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機能的인 地域協力機構에서 출발하는 것이 效果的인 地域協力推進 方法인 것이다.

3. 環太平洋連帶案

OPTAD와 類似한 機能的 統合을 内容으로 하는 構想案이 日本의 大平正芳 首相의 政策諮詢 機構인 「環太平洋連帶研究그룹」에 의하여 1980년 發表된 「環太平洋連帶」案이다.¹²⁾

大平首相에 의하여 設立된 日本의 環太平洋連帶研究그룹이 提示한 環太平洋連帶構想은 協力體의 構想이라기 보다는 協力課題의 나열이다. 그러나 이 러한 점에 있어서 이 構想은 地域協力體構成이 당분간은 현실성이 없다는 목시적 主張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이 構想의 意義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日本研究그룹은 經濟發展 및 協力의 높은 潛在力과 域內國家들의 多樣性 을 太平洋地域의 2大 特色으로 보았다. 地域協力體結成 可能性에 대한 懷疑 는 經濟發展段階, 人種, 文化, 宗教 등에 걸친 多樣性이 쉽게 克服될 수 없는 主要 障碍가 된다는 認識에 基因한다.

環太平洋連帶는 域內의 貿易問題의 解決, 對東南亞均衡外交의 必要性, 資源活路의 開拓, 南北問題의 接近으로서 日本의 太平洋 先.後進國間의 橋梁役 遂行의 必要性 등에 의해서 發想된 것이며 社會的 同質性을前提로 하는 開放的인 連帶의 指向, 連帶內 個別國家의 文化的 獨自性과 政治的 自主性의 尊重, 既存 協力體와 相互補完性의 紐帶 등을 同 連帶設定의 基本方向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同 連帶의 重要한 課題로는 域內諸國의 相互利害의 增進, 海洋開發과 資源問題의 協力 產業調整의 推進과 域內分業의 조장, 經濟協力의 強化 通貨 및 金融協力 등이 지적되고 있다. 參加對象範圍는 분명 하지 않으나 太平洋地域內의 先進 5個國과 ASEAN을 中心으로 하는 太平洋諸

註12) The Pacific Basin Cooperation Study Group, "Report on the Pacific Basin Cooperation Concept", in Sir John Crawford (ed.),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ggestions for Action(Malaysia: Heneman Education Books, 1981), pp.183-204.

國으로 言及되고 있고 最近에는 蘇聯에서도 이에 關心을 表明한 바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政府내지 民間 水準에서 關心分野에 대한 協力과 交流를 擴大함으로써 PAFTA와 같이 實質的인 統合機構를 實現할 수 있는 基盤을 造成하자는 內容으로 要約할 수 있다.¹³⁾

결국 日本研究그룹에 의하면 地域協力體結成은 時機尚早이며 오히려 相互依存意識 또는 地域社會意識의 形成自體가 先決되어야 할 當面課題인 것이다. 이에 따라 日本研究그룹이 提示하는 太平洋協力課題중에는 文化交流, 教育交流, 學術交流, 觀光 등의 國際交流를 통한 相互利害의 增進이 최우선課題로서 包含되어 있는 것이다.

日本研究그룹의 結論은 太平洋協力이 漸進的인 合意形成過程을 통하여 推進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서는 첫段階 事業으로서 域內 民間指導級 人事中心의 國際會議를 통한 協議가 반복되어야 하고 이러한 事業을 推進하려면 이를 위한 常任委員會가 우선 設立되어야 한다는 것이 同研究그룹의 主要 建議內容이었다.

이러한 會議를 거치는 過程에서 참가국들은 쉬운 分野에서부터 協力課題를 選定하여 이를 推進하기 위한 分野別 實務委員會를 構成하여 나아감으로써 太平洋協力を 造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日本研究그룹의 이러한 結論과 建議는 カンベ라 세미나에서 檢討되었으며 日本이 提示한 이와같은 環太平洋連帶造成 戰略은 同 세미나에서부터 始發된 太平洋經濟協力會議活動의 基本趣旨가 된다. 日本研究그룹의 環太平洋連帶構想은 이러한 점에서 意義가 큰 構想이다. 그리고 日本의 環太平洋連帶案의 多樣한 프로젝트도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갖고 있다.

첫째, 이 案은 21世紀에 人類共同의 繁榮을 위하여는 모두 研究되어야할 課題이나 너무 多樣하고 實現되기 어렵다. 또한 프로젝트의 우선순위가 不

註13) 李英勳, 太平洋地域經濟共同體 形成에 관한 研究(서울: 慶熙大學院, 1984), pp. 26.

明確하며, 어느 國家가 中心이 되어야 하는지 基準이 모호하다.

둘째, 이 案은 日本企業의 進出을 위한 프로젝트 研究와 같은 인상을 준다. 同構想의 각 프로젝트를 推進하기 위하여는 日本의 廣範圍하고 積極的인 參與가 必需的인데, 自然히 日本의 影響이 地域國家에 增大될 것이다.

셋째, 地域協力體를 構成할 會員國에 대한 言及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意圖的인 것 같으며 따라서 이 案의 참뜻을 疑心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表 3-7〉 太平洋地域 經濟統合案

	PAFTA(太平洋 自由貿易地域) Pacific Free Trade Area	OPTAD(太平洋 貿易開發機構) 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nd Deve- lopment	環太平洋連帶 (Pacific Basin Cooperation concept)
提案年度 및 提案者	1965 日本 K.Kojima	1979 美國議會 H.Patrick P.Drysdale	1979(中間報告) 1980(最終報告) 日本政府環太平 洋連帶 그룹
性格	制度的 統合	機能的 統合	機能的 統合
目的 및 機能	自由貿易地域	貿易. 開發. 產業問題 등의相互協力 및 調整	經濟. 社會. 文化 的協力擴大를 통한 經濟協力體
形態	EFTA, EEC型의 政府間 初步的 統合機構	政府間 經濟協力機 構 Task Forces中心	官民協力機構로 Task Forces 中 心
會員國	美國. 카나다. 日 本. 澳洲. 뉴질랜 드 準會員國: 아시아 및 中南美開途國	14個國(太平洋先進5 個國, ASEAN5個國 韓國. 臺灣. 홍콩. 파 프아뉴기니아)	具體的提案 없음
發展過程	1968년 PAFTA會 議에서 同案이 討議, 수용되지 못하여 機能的 統合案으로 修正 됨	1980년 Canberra會議에서 太平洋共同 體構成을 위한 準備機構로서 太平洋 經濟協力會議(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가 發足되어 發展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1982 년 太平洋頂上會談을 提案한 바 있음.	

資料: PBEC 韓國委員會, 太平洋經濟協力과 ASEAN, 1987, p.30.

第4章 太平洋經濟共同體構想에 관한 利害關係國의 立場

第1節 先進國

1. 日本

日本에 있어서 太平洋地域이 지니는 意味는 실로 莫大하다. 日本의 전체 輸入에서 太平洋地域이 차지하는 比重은 53.8%로 (1988년 말 현재) 壓倒的으로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日本의 源·燃料 輸入에 있어서도 太平洋地域은 매우 重要한 役割을 한다. 특히 이 部門에서 ASEAN의 位置는 매우 重要하다.

한편 日本의 對外直接投資에서도 太平洋에의 投資比率이 壓倒的으로 높다. 88년 말 현재 日本의 對外直接投資에서 太平洋地域이 차지하는 比重은 62.2%이며, 그 중에서도 美國이 38.6%로 單一國家로서는 제일 높은 比重을 차지한다. 그리고 ASEAN과 아시아 NICs의 比重은 각각 8.1%, 8%이다. 이상에서 볼 때, 太平洋地域은 日本에 있어서 대단히 重要한 地域임을 알 수 있다.

日本은 이와 같은 密接한 聯關關係를 지닌 太平洋地域을 以前부터 하나의 經濟圈으로 統合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日本은 이미 60년대 中盤에 學界에 의하여 한 EC-ACP간의 賴め協定을 模倣한 PAFTA안이 搞頭되었거니와 大平 前首相의 外交政策에서도 알 수 있듯이 太平洋協力構想에 가장 積極的인 立場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日本이 積極的인 姿勢를 보이고 있는 動機는 첫째로 天然資源의 대부분을 海外에 依存하고 있는 日本으로서는 이미 제2차 世界大戰 以前부터 資源確保를 가장 重要한 國家的 關心事의 하나로 해왔던 것이 周知의 事實이다. 특히 1973년 4차 中東戰 이후 石油 및 資源民族主義의 搞頭등 日本의 獨自의 資源外交에 대한 必要性을 더욱 절실하게 하고 있는점을 들 수 있다.

둘째, 太平洋勢力を 배경으로 政治的으로도 主導國이 되고자 太平洋地域에서의 再雄飛라는 意圖도 있으며 “經濟大國·政治小國”이라는 認識을 刷新하고 國際舞臺에서의 日本의 發言權 및 地位向上을 꾀하고자 하는 意圖도 있다.¹⁾

셋째, 日本은 太平洋地域 開途國들로 부터 對日 貿易赤字의 시정을 위해 輸入增加 要求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美國, EC와의 貿易不均衡에 따른 對美·EC와의 經濟摩擦도 심각한 實情이다. 또한 地域開途國들과의 經濟的 相互依存이 深化 되어 감에 따라 이들이 要求하는 南北問題의 解決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²⁾

비록 日本의 立場에서는 總論的으로 贊成을 表示하고 있으면서도 지난날의 大東亞共榮圈의 망령이 되살아 나지 않게 하려는 조심성과, 先進國과의 關係, 특히 後進國들의 反發, 자기도 太平洋圈에 속한다고 主張하고 있는 蘇聯의 反應 등을 예의 注視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問題에 接近하여 가고 있는듯 하다.³⁾

2. 美國

太平洋地域에 대한 美國의 利害關係와 政策의 優先順位에는 最近 10년 동안 커다란 變化가 일어났다. 과거 美國이 이 地域에서 가지고 있던 주된 關心은 戰略的인 考慮와 安保問題었으나 最近에는 이 地域國家들의 활목할 만한 經濟發展과 貿易伸長으로 인하여 經濟的 重要性이 크게 增大되었다. 美

註1) 鄭然雄, “太平洋 經濟共同體의 構成論議”, 外換銀行月報, 1980, 10, pp. 16 - 17.

2) 鄭淳元, “日本의 「環太平洋連帶構想」”, 月刊國際經濟動向, 1979.11, pp. 26 - 27.

3) 德山二郎, 太平洋の世紀- 日本經濟の活路を求める-(タイメテソ社, 1978, 11)

山澤晚平, “太平洋經濟圏確立の可能性と問題點”産業研究所間, 世界經濟の中心と我力, 國の經濟政策(1979.5)
環太平洋連帶研究ケルーフ, 協力關係促進た五つの課題: 中間報告書(1979, 11)

國의 1987년 太平洋地域과의 域內貿易依存度는 48%를 上廻하고 있으며, 이 러한 騰向은 1981년이래 一貫하고 있다. 더우기 太平洋地域에는 潛在的 成長力を 가지고 있는 國家들이 많이 存在하고 있어 이제 美國은 太平洋地域과의 相互依存關係를 외면하고는 存立 自體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다.

美國이 太平洋經濟共同體를 만들려고 하는 理由는,⁴⁾

첫째, 東南亞·東北亞의 太平洋諸國들과의 交易이 유럽國家들의 交易보다 많아졌다는 점,

둘째, 太平洋國家들 가운데 日本은 더 말할것도 없거니와 韓國, 홍콩, 臺灣, 싱가포르 등 新興工業國家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 地域 기타 國家들도 世界의 타지역 國家들보다 成長이 빠르다는 점,

세째, 中國, 인도네시아, 日本등 人口가 億臺國家들이 있고, 韓國, 필리핀, 泰國 등 4千萬 - 5千萬名에 달하는 國家들이 많아 크나큰 消費市場을 形成하고 있다는 점,

네째, 이 地域에서 世界 先進資本主義國家들이 必要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源資材가 生產되고 있어 源資材의 供給基地로 활용하다는 점 등이다.

美國의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에 대해 페어뱅크스 美 太平洋協力擔當 特別大使는 組織의 實體, 會員國範圍 등 아직 어느것도 確定한 바 없으며 美行政부의 具體的인 政策도 決定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基本立場을 밝히고 있다.⁵⁾

첫째, 同 協力體는 EC나 OECD와는 性格이 다르고 會員國을 拘束하는 初國家的 國際機構도 아니며, 世界의 다른 지역에서는 過去에 볼 수 없었던 多民族, 多文化, 多言語의 太平洋地域의 特有한 集合體를 目標로 하고 있다.

註4) 金英容, “環太平洋經濟協力方案”, 外換銀行月報, 1985, 6, p.20.

5) 日本 讀賣新聞(페어뱅크스大使와의 單獨會見 84.11.21),

1984.11.22

둘째, 政治, 軍士問題보다도 經濟, 文化, 科學面에서의 交流에 力點이 두어 질 것이다.

세째, 初基段階에서의 會合은 非公式的인 形態가 바람직하며 嘗面的으로는 이미 軌道에 오르고 있는 經濟協力を 中心으로 推進한다.

네째, 會員國은 限定하지 않는것이 좋으나 嘗面的으로는 ASEAN6個國과 城內5個先進國을 合한 11個國이 地域協力體制 設立의 中心이 될 것이며 韓國과 中共도 會員國에서 除外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美國이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에 대해 明白한 利益을 얻을 수 있고, 또 基本立場을 밝히면서도 아직도 망설이며 消極的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自由世界의 리더로서의 입장, 西歐重視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國內輿論, 翡權追求라는 政治的 誤解 등을 考慮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美國이 좀더 能動的이고 積極的인 態度를 취하려면 국내의 높아가는 保護主義 傾向과 나아가서는 이러한 協力提案에 대한 政府關係者들의 關心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美國은 80年代 以後에 계속해서 深化되고 있는 國際收支 赤字를 解決하기 위해서 二國間 自由貿易協定地代(Free Trade Area : FTA)를 提議하고 있다.

自由貿易協定을 締結한 嘗事國은 關稅障壁은 물론이고 非關稅障壁까지 撤廢하여 名實上部 二國間에는 自由貿易協定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美國이 世界的 貿易秩序를 위해 만든 GATT의 無差別多角主義라는 基本原則에 正面으로 違背되고 있다. 또한 美國의 自由貿易地代 創設은 92년의 EC統合에 대한 美國의 對備策이라는 意味도 同時에 지닌다.

自由貿易協定의 最初의 경우는 美國과 캐나다의 自由貿易協定의 締結로서 1988년에 이미 實施되기 시작하였으며, 美國은 自由貿易協定地帶(FTA)의 締結을 캐나다에 그치지 않고 멕시코에까지 擴大하려 하고 있다. 또한 美國은

최근 美國의 國際收支 赤字에서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日本과 韓國, 臺灣 등의 아시아 NICs와도 自由貿易協定을 締結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이 太平洋地域國家들과 單基間내에 FTA協定을 체결할 수 있는立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아직도 美國內에서는傳統的인 多者主義性向이 강하게 남아있고, 둘째, 美國 스스로가 FTA體結을 통한 貿易收支改選에 確信이 없으며, 세째, FTA體結에 따른 政治·外交·安保上의 關係變化에 대한 不確實性과 個別國 相對에 따른 行政力 소모 등否定的 側面에 대한 警戒心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濟洲·뉴질랜드·캐나다

制度化된 太平洋經濟共同體를 實現시키는 데에는 濟洲, 캐나다, 뉴질랜드등이 커다란 影響力を 갖는다. 이들 역시 工業國들이긴 하지만 이들이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을 推進한다고 해서 日本이나 美國이 主導權을 월 경우초래될 疑惑이나 憂慮 같은 것을 낳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工產品의 市場을 必要로 할 뿐만 아니라 또 提供해 주고 있으며, 資源의 보급국이기도 한 때문에, 先進國과 開發途上國 사이의 現存하고 있거나 潛在的인 紛爭의 소지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太平洋經濟共同體가 實現된다면 이는開發途上國에서 先進國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을 會員國으로 포함한 地域機構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組織體가 될 것이며, 產業과 貿易의 專門化는 垂直的, 水平的으로 여러가지 次元에서 추구될 것이다. 따라서 이 세 先進國의 參與는 共同體內의 工業 및 資源의 多變化에 決定的인 重要性을 가지게 될 것이다.

현재 濟洲와 뉴질랜드사이에는 NAFTA(New Zealand-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가 1966년부터 形成되어 制限된 自由貿易을 하고 있다.⁶⁾ 그리고

註6) Shin-jce Kang, Economic Integration in Asia(Hamburg: 1969), p.26.

1995년까지는 모든 貿易障壁을 헐어버리고, 共同市場을 形成할 計劃으로 있다. 그러나 현재 兩國은 產業構造가 매우 유사해 經濟의 補完性이 包括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현재 계속 深化되고 있는 對豪洲貿易赤字를 非難하고 있다.⁷⁾ 그러므로 豪洲는 太平洋經濟共同體 구성에 상당히 積極的 態度를 表明하고 있다. 그리고 豪洲는 蘇聯의 勢力權膨脹을 저지하기 위한 目的으로도 太平洋經濟共同體의 形成을 支持하고 있다. 그래서 環太平洋共同體構想에 대한 大平·프레이저首相의 共同聲明이 나오기도 했으며,⁸⁾ 豪洲國立大學의 Peter Drysdale 教授는 具體的으로 美國과 協助하여 OPTAD案을 내놓기도 했다.

註7) 李長熙, “環太平洋共同體案의 國際開發法的 檢討”, 國際法學會論叢, 1986, 12, pp.159-160.

8) 魚秀永, “아시아太平洋地域의 新國際秩序를 위한 太平洋地域共同體構想”, 國際政治學會 國際政治論叢, 第20輯, 1980, p.150.

第 2 節 아시아 NICs와 ASEAN

1. 아시아 NICs

아시아 NICs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홍콩과 싱가폴 兩國은 港都로써 오랜 歷史를 지닌 都市國家에 불과하며, 韓國과 臺灣도 각각 93,966km²와 35,981 km²의 좁은 國土에 可用面積마저 狹小할 뿐 아니라 天然資源도 매우 부족한 國家이다.

1960年代 이처럼 自然條件이 불리한 아시아 4個國이 勞動集約的인 工產品 生產을 통해 輸出主導型의 經濟開發戰略을 推進한 結果, 製造業分野의 生產이 급격히 增加하여 勞動力を 흡수함으로써 經濟成長의 惠澤을 社會全般에擴散했을 뿐 아니라, 1970年代 初에는 이미 輕工業消費製品의 주요한 輸出 國들로 浮上하게 되었다.⁹⁾

특히, 1979년 제2차 오일쇼크 이후에도 外國資本과 技術을 유치하여 工業化에 성공한 아시아 NICs는 國內需要부족을 輸出로 解決하여 世界에서 가장 빠른 速度의 經濟成長率을 계속 유지해 나감으로써 發展의 安定性과 底力を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最近 世界經濟의 低成長局面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30여년을 통해서 進行되어온 對美輸出 對日輸入의 동시적 急增現象은 엄청난 貿易不均衡 問題로 나타나게 되면서부터 NICs의 輸出工業化政策은 심각한 위협에直面하게 되었다.¹⁰⁾

이에 NICs는 市場開放 및 通貨切上에 주력하게 되었고, 이는 相互交易增加와 ASEAN商品의 輸入增加로 연결됐다. NICs는 日本과 마찬가지로 美國과

註9) 韓國, 臺灣은 1961년부터 홍콩·싱가포르는 50년대 초부터 輸出指向型 開發政策을 實施하였음.(OECD, "The Impact of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on the Pattern of World Trade and Production in Manufactures", Paris, 12th April, 1978.)

10) 中村雅秀, “途上國危機と アメリカ”, 經濟, 1986, 8.

의 貿易摩擦을 피하기 위해 ASEAN을 輸出前進基地로 選定, 資本 및 技術供與를 확대하기 시작함으로써 아시아地域의 經濟가 日本을 中心으로 하는 短軸構造에서 複數軸構造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표 4-1〉 美·日·아시아NICs間 貿易不均衡
(單位: 10億달러)

	1980	1987
美國·日本 貿易量 (1)	55.8	119.0
不均衡 (2)	7.0	52.1
(2)/(1) (%)	12.5	43.8
美國·아시아NICS 貿易量 (1)	34.6	87.7
不均衡 (2)	3.4	37.1
(2)/(1) (%)	9.8	42.3
日本·아시아NICS 貿易量 (1)	26.6	58.3
不均衡 (2)	11.8	20.7
(2)/(1) (%)	44.4	35.5

註 1) 貿易量과 同不均衡은 兩地域 輸出·入의 合計와 그 收支差임.

資料 : 野村總合研究所

이들 아시아 NICs중 韓國과 ASEAN에 속해 있는 싱가풀을 제외한 臺灣과 홍콩의 立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臺灣은 外國과의 貿易摩擦, 中國과의 關係問題등 장래가 不透明한 가운데 적절한 投資가 이루어지지 않아 未來의 經濟成長을 쉽게 낙관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새로운 國際關係의 定立의 必要性을 느끼고 있다고 하겠다.

홍콩역시 中國과의 合併 이후에도 中國과 여타세계의 중계점으로써 獨特한 役割을 運行해 나갈 것으로 예견된다.

新興工業國들(NICs)에게 있어서 太平洋地域의 經濟的 協助 및 協力의 問題는 지속적인 經濟成長과 活力에 지극히 重要한 位置를 차지한다. 이들 NICs들은 美·日과의 높은 貿易關係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本質的으로 開放社

會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이 地域에 되도록이면 많은 나라를 포함하는 相互協助的 體制를 바탕으로한 太平洋經濟共同體가 形成될 경우 範太平洋社會의 主役의 일부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2. ASEAN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泰國, 싱가풀의 5個國으로 構成되어 1967년 8월에 政治, 經濟, 文化, 社會의 諸分野에 걸친 域內協力を 目的으로 創設된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諸國은 싱가풀, 말레이지아를 제외하고는 낮은 所得水準과 1次產品 中心의 經濟構造로 인하여 經濟的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ASEAN은 풍부한 天然資源을 背景으로 經濟自立化와 工業化를 推進하여 착실한 經濟成長을 이룩함으로써 世界經濟속에 새롭게 認識되고 있다.¹¹⁾

이러한 ASEAN經濟의 그 特性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

첫째, 農業, 漁業, 鑄業 등 採取產業위주의 產業構造 및 少數의 特定 1次產品 輸出위주의 經濟構造를 이루고 있어 傳統的인 農耕社會의 特性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위약한 產業構造를 改善하고 經濟成長을 이룩하기 위한 產業政策은 基本的으로 輸入代替化政策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後半부터 輸入代替化政策의 限界를 認識하고, 輸入代替化政策과 아울러 賦存資源을 활용하는 輸出指向的 工業化政策을 積極 推進하고 있다.

세째, 工業化 등 經濟開發을 위한 投資는 國內投資蓄積水準이 낮아 많은 부분을 外國人投資 등 海外貯蓄에 依存하고 있으며, 특히 日本과 美國에 대한 依存度가 크다.

네째, 輸出入은 비교적 높은 伸長率을 보이고 있으나 그 規模는 아직 작

註11) 國際經濟研究院, “우리나라와 ASEAN의 經濟協力”, 1981, 6, pp.8-9.

12) KOTRA, “아세안 5개국의 事業環境과 進出對策”, 1981, 12, pp.17-18.

은 편이며, 輸出入市場은 日本과 美國에 偏重되어 있다. 또한 輸出은 1次產品 中心으로 輸入은 工產品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형적인 先進國과의 垂直分業型 貿易構造를 이루고 있다.

다섯째, 풍부한 農產資源, 林產資源 및 鑽物資源은 ASEAN의 成長潛在力を 높여주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對ASEAN 交涉을 強化시키는 原因이 되고 있다.

여섯째, ASEAN諸國은 發展段階, 經濟規模 및 經濟構造 등에서 많은 多樣性과 異質性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ASEAN諸國은 하나의 地域市場이 아니라 각각 분리된 個別國家市場이며 또한 외부의 資本, 技術, 市場에 대해서 相互競爭的인 構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特性을 지니고 있는 ASEAN은 太平洋地域國家들과 實際 交易 및 經濟協力面에서 다음과 같은 關係를 가지고 있다.

日本은 ASEAN의 가장 큰 交易相對國으로 ASEAN輸出의 25%, 輸入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ASEAN에 가장 많은 投資를 한 國家이다. 한편 日本은 天然고무, 朱錫 등 主要資源을 ASEAN에 依存하고 있으며, ASEAN諸國들은 日本輸入의 14%, 輸出의 6%를 차지하고 있다. 美國은 日本에 이어 ASEAN의 제2의 交易相對國으로 ASEAN 輸出의 20%, 輸入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投資에 있어서도 美國은 日本 다음가는 제2의 投資國이다. 다음은 澳洲, 카나다, 뉴질랜드의 순으로 ASEAN과의 交易 및 經濟協力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ASEAN은 太平洋先進 5個國과 對話채널을 開設, 이들과의 貿易 및 經濟協力を 增進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들 太平洋先進國들은 太平洋經濟共同體構想을 論議하는데 있어 ASEAN의 參與를 必需的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ASEAN諸國들은 太平洋經濟共同體設立에 가장 慎重하고 留保的인 態度를 취하고 있다. 太平洋經濟共同體設立에 관건을 쥐고 있는 ASEAN의 立

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³

첫째, 太平洋經濟共同體에 대한 先進國이나 아시아 NICs의 接近方法이 國際主義的이지만 ASEAN은 民族主義的 입장에서 이를 利害하고 있다.

둘째, 先進國은 國際分業과 協力의 問題를 比較優位의 原則과 補完性에 입각해서 把握하고 있지만, ASEAN은 國際協力과 協力體設立을 병행하여 接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째, ASEAN은 地域主義를 南北問題와 非同盟原則 그리고 ASEAN體制의 既存協力構造와 調和된 次元에서 단합된 交涉力を 유지하면서 接近하려는 原則을 固守하고 있다.

네째, 先進國은 相互依存度가 共同體 發足에 必要한 前提條件을 充足시키고 있으므로 制度化를 先行시킨 후 이를 論議하자는 立場이지만 ASEAN은 보다 확실한 課業, 獻呈 및 組織體系를 制度화의 前提條件으로 내세우고 있다. 最近에 와서 ASEAN은 太平洋地域에 어떠한 形態로든 地域經濟協力機構가 創設될 可能性이 짙어진데다 會員國間 協力이 벌반 進展이 없으므로 해서 太平洋經濟共同體設立에 參與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84년 7월 ASEAN外相會議에서 ASEAN擴大外相會議를 定例化하기로 하고 域內 先進國에 人的資源開發事業(HRD Program)의 支援을 要請하는 등 從前의 消極的 態度에서 積極的인 方向으로 轉換하고 있는 것이다.

註13) 安清市, “太平洋地域協力體構想에 대한 主要 當事國들의 立場과 利害關係”, 韓國政治學會, 1983, pp.445-446.

第3節 기타 關係國

1. 蘇聯

全體 國土의 面積의 4분의 3이 아시아 大陸에 속해 있고, 全體 人口의 3분의 1이 이 地域에 살고 있으며, 人種的으로도 全體의 20%가 넘는 6천만명이 아시아係인 蘇聯은 자신을 아시아 勢力의 하나로 자부하여 왔다. 그러나 蘇聯은 歷史的으로 政治. 經濟 등 모든 主要 政策을 모스크바를 中心으로한 유러시아 地域에서 주도하였으며, 外交戰略 역시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주안점을 두고 展開하여 왔다. 물론 레닌에 의하여 이미 蘇聯의 東部地域 특히 시베리아의 重要性이 強調되었다고는 하지만 7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시베리아 開發政策이 本格的으로 推進되면서 이 地域의 經濟的 潛在力과 함께 政治. 軍事的인 重要性이 새로 認識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¹⁴⁾

蘇聯의 對太平洋貿易을 보면 輸出이 1985년에 1.6%, 輸入은 9.6%로 매우 比重이 낮고 게다가 그것마저도 美國, 카나다, 濟洲로부터의 貿物輸入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對日貿易이 대부분이다. ASEAN諸國과의 貿易比重은 매우 낮아 보잘것 없다. 蘇聯의 太平洋地域國家와의 貿易額은 지난 3년을 보았을 때 거의 늘지 않은데다 또한 長期的으로 보아도 大幅的인 伸長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로, 蘇聯의 對太平洋輸出 가운데 에너지, 鐵山品의 大幅的인 伸長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⁵⁾ 즉 蘇聯은 太平洋國家로부터의 輸入關心品目이 는다 할지라도 外貨支拂과 貿易의 밸런스를 고려할 때 일정한 限界가 있다고 하겠다.

註14) John J. Stephan, Asia in the soviet Conception, in Donald S. Zarrow(ed), Soviet Policy in East Asia(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p.31.

15) 애구치 유지로, “太平洋經濟協力의 新局面”, 國際問題, 1987, 9, p.94.

〈表 4-2〉 蘇聯의 對太平洋諸國 貿易現況
(總輸出·輸入額 占有比率)

		1983	1984	1985	85/84 신장율	太平洋貿易 中 比率 %(1985)
日本	出入	1.2 3.7	1.1 0.3	1.2 3.3	8.2 9.0	69.3 34.3
美國	出入	0.5 2.6	0.4 0.4	0.4 3.4	4.4 -17.8	24.3 35.7
카나다	出入	- 2.1	- 0.2	- 1.3	-6.6 -33.8	1.3 14.2
豪洲	出入	- 0.6	- -	- 0.7	-39.5 8.3	1.0 7.9
ASEAN	出入	- 0.7	- -	- 0.6	-19.1 -28.0	3.6 6.5
太平洋貿易 比 率	出入	1.9 10.2	1.7 11.3	1.6 9.6	4.5 -11.9	

資料：蘇聯外國貿易統計，1986.

長期的으로 볼 경우 蘇聯을 비롯한 太平洋社會主義 諸國도 自由主義 諸國과 經濟交流을 擴大해 나갈 것임은 분명하다. 社會主義 經濟政策은 自由經濟方法을 취함으로써 活性化시켜야 할 必要性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깊이認識하고 있는 것이다.

太平洋經濟共同體에 대한 蘇聯의 見解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蘇聯은 日本이 環太平洋連帶構想에서 蘇聯과 여타 社會主義國家들의 窮極的 參與를 排除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입치레에 불과하며, 사실은 이 構想이 日本의 反蘇對策이란 슴은 意圖를 內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동시에 이 構想은 日本이 그 經濟力を 背景으로 하여 太平洋地域에서 頭權을 잡으려고 하는 日本式 '凡아세아주의'의 發露라고 非難하고 있다.¹⁶⁾

註16) Y.Bandura, "The Pacific Community-A Brian-Child of Imperialist Diplomacy, International Affairs(Moscow: June, 1980), pp.63-70.

반두라(Y. Bandura)에 의하면 環太平洋 構想은 經濟的으로는 日本이 太平洋沿岸에서 膨脹計劃을 획책하는 한편, 美國, EC 등의 競爭相對들로부터 日本의 獨占的 地位와 利益을 保全코자 하는 기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最近 蘇聯은 太平洋經濟共同體의 形成이 그들의 太平洋에로의 勢力膨脹을 저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太平洋經濟共同體의 形成을 저지하기 위한 外交政策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¹⁷⁾ 더우기 고르바초프 蘇聯共產黨書記長은 最近 블라디보스톡의 이례적 極東방문을 끝내면서 1986년 7월 28일 太平洋으로의 本格進出을 宣言했다.¹⁸⁾ 즉 蘇聯으로서는 고르바초프의 經濟改革을 效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특히 시베리아圈의 開發을 위하여 太平洋地域諸國들과의 關係의 改善이 要望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太平洋을 둘러싼 美·蘇의 角逐戰은 더욱 치열해지고, 太平洋經濟共同體의 形成을 저지하려는 蘇聯의 外交도 더욱 積極的일 것으로 보인다.

2. 中國

中國 成立 이후 中國의 對外經濟關係는 심한 變動을 거듭하여 왔다. 그 理由는 中國의 對外經濟政策이 一貫成 있게 展開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대체로 中國의 對外經濟政策은 다음 3가지 要因의 相互作用에 의해 決定된다. 첫째, 國內政治 및 그에 關聯된 國內經濟政策, 둘째, 對外政治關係, 세째, 經濟的 必要性 등 3가지 要因이다.¹⁹⁾

1949년 이후 1960년 8월에 이르는 期間중에 中國의 對外經濟關係는 소련을 위시한 對共產圈國家와의 側向된 關係이었다. 특히 蘇聯과의 關係는 이 期間중의 對外關係를 特정지을 정도로 重要하였다. 이 期間중의 蘇聯과의 貿易은 中國 總貿易의 절반가량 차지하였으나, 1958-1959년에 이르러 理念

註17) 李長熙, 前揭書, pp.160-161.

18) 朝鮮日報, “蘇聯 太平洋本格進出宣言”, 1986, 7, 30, p.4.

19) 李相俊, 中共經濟論(서울: 博英社, 1985), p.215.

의인 紛糾와 不和가 露骨化되어 1960년 8월 蘇聯의 일방적 중단에 의해 中國經濟를 붕괴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 이후 中小關係는 악화되고 中國의 對外經濟政策은 급격한 轉換을 보게 되었다. 즉 60년대는 自力更生이 對外經濟政策의 基本原則이 되었다.

이러한 自力更生의 原則은 1966년에 시작되어 1967-1968년에 最高潮에 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對外貿易은 制限될 수 밖에 없었다. 文化革命에 의한 社會的 혼란이 修習되자 自立運動에 대한 修正을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對外經濟關係도 開放의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그렇지만 自力更生이란 原則은 그 이후에도 모든 經濟政策은 물론 여타政策에 있어서도 基本的인 原則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0년 2월 美國의 닉슨 大統領이 訪中에 이어 同年 9월에 日本과 國交를 回復하는 등 대담한 門戶開放政策을 實施하였으며, 1976년 10월 四人幫의 실각을 계기로 크게 軌道修正을 하게 되었다. 더우기 78년 '10개년 계획'의 發表 이후에는 단순한 修正의 範圍를 넘어 政策의 根本的인 變更이 있게 된다. 종래의 自主獨立 또는 自力更生의 原則은 크게 退潮하고 그 대신 對外開放政策이 여러 방면에서 具體化되기에 이른다.²⁰⁾ 1978년 등소평體制의 등장 이후 中國이 推進해온 實用主義的 對外經濟政策은 1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段階에 접어들고 있다.

中國은 太平洋地域의 重要한 發展途上國이며, 地理的인 近接, 傳統的인 歷史關係, 특히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의 施行으로 中國과 太平洋地域의 經濟貿易協力關係는 급속한 發展을 이루하였다. 이러한 것은 中國이 太平洋地域의 主要國家들과의 交易을 급속히 擴大하고, 이들로부터 資本과 技術의導入을 적극 推進하게 되면서부터, 中國은 社會主義 經濟의 固守라는 기본原則과는 무관하게 太平洋地域의 經濟를 논함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重要한 因子로 作用하고 있다.

註20) 上揭書, pp.217-221.

改革措置 이후의 中國經濟는 급속한 成長과 더불어 不均衡을 經驗하고 있다. 中國이 취한 改革措置는 成長에 따른 物價上昇, 地域間·職種間 不均衡, 商品需給構造의 不均衡, 社會間接資本의 부족 등의 몇몇 問題點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成功的인 것으로 評價된다. 中國의 6차 5개년 計劃期間中 主要經濟指標에 대한 實際成長率은 당초의 計劃보다 월씬 超過達成된 것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同期間에 걸친 과감한 改革措置의 結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表 4-3) 中國의 GDP, 輸出, 輸入의 實質成長率: 1980-86

GDP	製造業	輸出	輸入	1人當GNP
10.5(6.4)	12.6(9.5)	11.7(5.5)	16.8(8.0)	5.1(300)

註) 위표에서 첫번째 숫자는 1980-86 기간중의 연평균 실질성장을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1965-80 기간중의 연평균 실질성장을 나타낸다.

資料: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8, June 1988.

(表 4-4) 中國의 總交易中 太平洋地域의 比重

	1977	1983	1985
輸出	59.9	62.9	69.7
輸入	59.1	62.1	68.2

資料: Dernberger(1988) p.19., Table A4.

中國과 太平洋地域國家와의 연계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¹⁾

中國과 ASEAN과의 交易內容은 相互間에 自然資源과 勞動集約製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中國은 農業과 輕工業製品을 輸出하고 ASEAN은 自然資源을 주로 輸出하고 있다. 相互間의 交易이 주로 1차產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相互補完的 性格을 띠고 있다. 中國은 糜, 原油, 朱錫 등을 輸出하고 ASEAN은 고무, 설탕, 동, 기타 熱帶食品을 輸出하고 있다.

註21) 崔善哲, “中國의 對亞·太政策”, 外交, 1989, 6, p.33.

또한 中國의 現代化에 必需的인 要件은 先進技術과 資本의 導入이라고 해도 과장된것은 아니다. 中國이 太平洋地域의 先進國과의 關係가 重要한 것은 交易, 資本 및 技術導入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中國의 太平洋 先進 5個國과에 대한 輸出入依存度는 全體의 30-42% (1978-1986)에 달하고 있다. 外資導入에서 太平洋地域 先進 5個國에 대한 依存度도 매우 높다. 中國의 外資導入 總額중 45-50%(1984-1986)를 先進 5個國이 차지하고 있다. 中國의 先進技術導入 寄與에도 서방에의 依存度가 매우 높다. 先進技術 導入契約의 66%를 美國, 日本, 서독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中國은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見解를 가지고 있다.

中國은 太平洋地域에서 經濟發展 水準의 차이가 交易의 多變化, 先進國들의 資本. 技術 利用 및 先進市場確保라는 側面에서 經濟發展을 위한 資產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先進國에 대한 經濟依存度 深化로 先進國들의 保護主義 強化趨勢는 中國을 비롯한 開途國들의 經濟成長을 저해하고, 이것이 政治的 依存으로 연계될 可能性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中國은 經濟機構 등 多者間의 協力으로 相互補完性 擴大와 相互規制 및 開途國들의 연대감 강화로 先進國들의 양보를 구하고, 開途國들의 經濟發展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太平洋地域의 韓國, 싱가포르 등 소위 아시아 NICs와의 經濟協力擴大로 先進工業國들에 대한 經濟依存을 줄이고, 交易. 技術市場의 多變化를 강구하고 있다. 즉 中國은 太平洋地域에서의 經濟協力에 있어서 南北間의 協力으로 相互補完性 擴大로 開途國과 先進國間의 相互利益을 擴大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中國이 추구하는 經濟協力은 각국이 상이한 利益과 國際經濟環境의 要因으로 단시일내에 실효를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²²⁾

註22) 上揭書, p.35.

여하튼 人口大國인 中國의 太平洋經濟共同體에 대한 參與與否는 太平洋經濟共同體의 미래의 巨變數임은 틀림이 없다.

第 5 章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과 韓國의 對應方案

第 1 節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의 問題點과 發展方向

1. 問題點

太平洋地域經濟는 <表 5-1>에서 보듯이 70년대 이후 높은 成長을 계속해 왔다. 88년에는 美, 日을 제외한 平均實質經濟成長率이 7.3%이고 11%이상 成長을 하고 있는 나라가 韓國, 中國, 泰國, 싱가포르 등 4個國이다. 또한 앞으로豫想되는 經濟成長의 趨勢도 89년 8.1%, 90년에는 5.5%로 다소 안정 趨勢에 있지만 EC 등 여타지역보다 여전히 높은 成長을 記錄할 것으로 展望 된다.

이러한 팔목할 成長結果로 太平洋地域이 최근 世界經濟成長의 基軸으로 浮上하고 있는 것이다. 이 地域이 앞으로 계속 世界經濟活動의 中心地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共同協力이 필요하다는 데는 많은 國家들이 認識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開途國 發展支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保護主義 傾向에 따른 貿易問題 解消, 共同繁榮을 통한 이 地域에 있어서의 배분적 正義實現이라는 原則下에서 地域內 共同協力은 重要的 意味를 갖는 것이다.

問題는 이러한 協力의 認識보다는 協力方法을 中心으로하는 評價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本質的인 問題는 地域的 共同體意識의 缺如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을 들어보면 첫째, 太平洋地域協力を 制度化 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은 地域內 國家들의 異質性 보다는 消極的 態度라 하겠다. 특히 ASEAN國家들의 경우가 두드러진 예라 하겠다. 어떠한 形態의 地域協力 努力이라 해도 ASEAN國家들의 參與가 없는 것은 無意味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國家들의 消極的인 態度는 이 地域의 協力 努力을 制度化 하는데 있어 매우 決定的인 沮害要因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消極的인 態度는 여러가지 理由가 있으나 그중 協力を 통해 혜택의 均衡的인

配分에 대한 疑懼心, 지금까지 제기된 諸構想案들의 具體性 缺如 등이 重要 한 沮害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表 5-1> 太平洋圈의豫想實質經濟成長率 (1989-90)

國 別	1988	1989	1990
豪 洲	4.0	3.5	2.2
캐나다	4.5	3.1	2.5
中 國	11.2	9.5	10.5
朝 韓	7.4	6.1	5.5
인도네시아	4.7	5.4	5.1
日 本	5.7	5.2	3.6
韓	11.0	7.9	6.7
말레이지아	7.9	6.9	6.1
뉴질 랜드	0.4	3.0	1.9
필리핀	6.9	5.8	5.9
싱가포르	11.0	7.0	6.5
臺 國	7.1	6.5	5.9
泰 國	11.0	8.5	7.5
美 國	3.8	2.5	1.9
平 均	6.9	5.8	5.1
美.日을 除外한 平均	7.3	6.1	5.5

資料 : PECC 1983-1990年 經濟展望

둘째, 地域內 國家들의 經濟發展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問題點이域內協力を 推進하는데 障碍要因이 되고 있다.

즉 最近 美國의 貿易不均衡 是正을 위한 相互主義 適用등의 保護貿易主義擡頭로 인하여 太平洋地域經濟의 成長制約要因으로 登場할 危險性이 있고, 아시아 NICs들 또한 높은 成長을 계속하고 있으나 構造的으로 貿易依存度가 높아 先進國이 아시아 NICs의 輸出急增을 自國產業에 대한 위협 내지 추월 등으로 認識하려는 움직임, ASEAN諸國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여전히 1차產品의 依存度가 높은 經濟構造를 갖고 있어 1차產品의 國際市場市勢 여하

에 따라서는 經濟成長이 減少될 可能性이 높고 泰國 등 일부 ASEAN 地域國家의 경우 工業化가 急進展되고 있으나 工業主導型 經濟成長에는 상당한 時間이 소요될 것으로 判斷되는 점 등은 太平洋地域經濟의 成長制約要因으로 登場할 危險性이 극히 높아 이 地域의 協力機構를 設置하는데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세째, 地域協力制度化를 推進하는데 있어 主導的 役割을 할 國家가 없다는 것이다. 美國이나 日本이 그들의 經濟的 位置로 보아 주도적 役割을 맡을 수도 있겠으나, 問題는 地域의 主要部分을 이룩하고 있는 ASEAN 國家들의 強大國의 役割에 대한 거부반응인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先進國과 ASEAN 諸國들 간에 있어 中間橋梁的 役割을 할 수 있는 經濟的 位置에 있는 韓國이 그러한 役割을 試圖해 왔다는 事實은 매우 重要하다.¹¹

2. 發展方向

이상, 太平洋地域이 금후에도 安定的인 發展을 통해 世界經濟의 活性化, 發展에 寄與하기 위해서는 同 地域의 成長 潛在力を 최대한 발휘해야 하며, 이와같은 不安要因을 域內 相互協力에 의해 解消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同 地域에 대한 協力은 다음과 같은 方向에서 積極的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太平洋地域의 多樣性을 尊重해야 한다.

太平洋地域에는 先進國, NICs, 開途國 등 經濟發展段階가 상이한 國家가 存在하며, 人種的, 文化的, 宗教的으로도 참으로 多樣하다. 이러한 多樣性이야말로 同 地域의 活力의 根源이므로, 協力도 이러한 多樣性을 충분히 尊重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各國의 發展段階을 考慮한 現實的이고도 漸進的인 協力關係를 構築

註1) 朴維榮, "環太平洋地域協力體制에 關한 研究", 大韓國際法學會 論叢 第32卷 第2號, 1987, 12, pp.38-9.

해야 한다.

先進國間의 協力은 相互互惠가 基本原則이지만 太平洋地域 協力은 NICs, ASEAN, 기타 島嶼地域 각각의 社會經濟發展과 相互依存關係의 進展狀況을 考慮한 協力과 對應이 必要하며, 各國의 發展段階에 따라 國際經濟運營에 自主的으로 參與할 수 있도록 誘導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세째, 經濟發展의 健全性을 維持해야 한다.

太平洋地域의 成長의 潛在力은 금후의 世界經濟發展의 核心的 推進力이 될 것인 바 債務問題 등으로 이러한 潛在力이 壓失되어서는 안된다.

開途國으로서도 經濟의 效率性을 提高시키기 위한 自助努力을 계속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네째, 開放的인 協力體制를 維持해야 한다.

太平洋地域의 協力이 어떻게 進展되든 그것이 지나친 地域閉鎖性에 마침 경우, 世界貿易의 縮小로, 결국에는 同 地域의 經濟發展 可能性을 壓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타 經濟圈도 희망한다면 參與可能한 開放的인 協力體制를 維持해야 할 것이다.

第 2 節 太平洋經濟共同體構想에 關한 韓國의 參與 必要性

1. 韓國의 關心

1979년초까지 地域經濟共同體設立에 관한 問題가 韓國에서 關心의 주제가 된 것은 오직 몇몇 國際經濟學者들에게 뿐이었다. 이 構想에 대한 그들의反應은 一般的으로 否定的인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런 機構가 한두개의 先進經濟大國에 의하여支配될 것이며 또 ASEAN國家들이 이 機構에 등을 돌릴 것이라는 불안에 根據하는 것 같다. 또한 이들이 별로 熱意를 갖지 않은 것은 틀림없이 韓國經濟의 눈부신 成長이 그런 機構의 도움 없이 成就됐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른 아시아國家에서 그랬듯이 韓國에서 太平洋經濟共同體構想에 대한 著述 및 論議는 특히 日本과 호주首相의 高次元的인 檢討와 美議會의 몇몇 小委가 강력히 關心을 표명함과 더불어 1979년에야 擴散됐다. 이 地域 統合機構에 대한 韓國의 公式的 關心은 美議會 및 行政府 官吏들이 1979년도에 韓國의 高位官吏들에게 太平洋經濟共同體構想이 關係各國에서 점차 關心을 끌어가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귀뜸해 주고 또 그들이 地域的 經濟共同體를 推進하는데 있어 協助를 구하는 것으로 알려짐으로써促進되었다. 1979년에는 오끼다사부로(大來佐武郎)博士를 포함한 日本의 專門家들이 이 問題에 관해 韓國의 見解를 試驗해 보려 했다.

太平洋經濟共同體案의 當爲性과 可能性 그리고 기타 意味들에 重點을 둔研究課題들이 9월 중에 당시의 朴正熙大統領에 의하여 주어졌다. 韓國國際經濟研究院(KIEI)이 특히 이 案의 貿易面에 深層있게 研究遂行하였고 高麗大의 아세아問題研究所(ARC)에 의하여 주관된 또 하나의 研究는 太平洋經濟共同體理念의 政治的, 文化的 및 經濟的 重要性을 깊이 分析하는데 目標를 둔非政府次元의企劃이었다. 이 研究에는 多樣한 大學 및 기타 主要 研究機關의 研究員들이 參與者로 包含되었다.

세번째 研究는 不可避하게 이 問題를 보다 빈번하게 다루게 된 外務部에 助言한다는 眼目으로 外交安保研究院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에 부가적으로 太平洋經濟共同體概念에 관하여 政府에 助言 및 政策形成 機能을 수행할 研究機關 및 각 分野의 관련자들로 構成되는 公式的 諮問 또는 研究그룹으로서 韓國太平洋協力委員會(KCPC)가 組織되었다. 그러나 韓國에 있어서의 太平洋協力問題에 관한 研究 및 論議는 1982년 6월 太平洋地域頂上會談案이 發表된 이후 특히 크게 活性化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韓國의 參與 必要性

韓國은 여러가지 점에서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에 關心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韓國經濟는 外部指向的인 輸出主導型의 構造를 갖고 있다. 韓國은 自然資源이 부족하며 制限된 領土 내에 過密한 人口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發展戰略은 產業化로 決定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戰略은 資本의 不足과 國內市場의 狹小에 直面하게 되고, 이의 克服을 위해서는 輸出市場의 確保에 전념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資本의 不足現象은 外貨를 要求하게 되고, 이는 輸出擴大를 要求하게 된다. 결국 韓國經濟는 輸出主導的成長戰略을 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韓國은 자유롭고 開放的인 國際經濟秩序를 必要로 한다. 이와 같은 國際經濟秩序의 維持를 위해서 새로운 域內 經濟共同體가 必要하며, 이러한 經濟共同體를 形成함으로써, 貿易, 技術移轉, 海外直接投資, 資源問題 그리고 產業構造改編 등 諸分野에서 國際的으로 우리의 利益을 대변할 수 있는 討論의 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과 最近 國際的으로 번지고 있는 保護貿易主義의 趨勢와 先進國과의 貿易紛爭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雙務主義보다는 經濟協力體를 통한 地域主義에 입각, 접근 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 이지역 선진국들과 ASEAN國家들과의 貿易紛爭解決方式이 一般化된다면 그 만큼 우리에게 利益이 될 것이다.

두번째 理由는 韓國의 對外貿易은 域內國家들에 크게 依存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韓國輸出은 平均 70%가 域內에서 이루어 졌고, 80년 이후에도 60-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韓國의 輸出市場은 域內 國家들에 크게 依存하고 있다. 이는 輸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經濟發展에 重要한 技術移轉도 域內 특히 美國과 日本에 약 80%를 依存하고 있으며, 資本輸入도 대부분이 域內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번째 理由는 韓國은 世界 어느 地域共同體에도 參加하지 않고 있는 狀況下에서 美國과 日本이 主導하는 새로운 地域共同體에 參加하지 못하고 孤立된다면 韓國은 太平洋地域에서 孤立될 可能性이 있다. 韓國은 이런 事態를 防止하기 위해서 새로운 地域共同體에 參加가 必然的이다.²⁾

네번째 理由는 同 機構의 構成은 韓國의 安保的 側面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地域의 勢力均衡은 그 地域 시스템의 構成멤버가 많을수록 安定되는 傾向이 있다. 韓半島에서 두 멤버만이 對立關係에 있을 때 보다는 美國, 中國, 日本, 蘇聯이 이곳의 勢力均衡에 參加할 때 그 安全性은 커지는 것이다.

註2) 魚秀永, “太平洋共同體構想”, 外交安保研究院, 1979.12. p.39.

第3節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과 韓國의 對應方案

앞 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에의 參與는 失보다 得이 많다고 하겠다.

따라서 韓國은 한편으로는 民間次元의 域內 協力機構를 活性化 시키는데 적극 參與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政府次元의 域內 各國과의 雙務的인 유대의 強化를 위해 努力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域內 開途國과 先進國의 仲介者로서 위치한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方向에서 그 機能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1. 交易增進 方案

域內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이 각종 工產品에서 比較優位를 갖게 되고 電子製品을 위시한 尖端製品 등을 生產하게 되자, 先進國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新興工業國들相互間에 競合으로 인한 貿易摩擦이 심각한 狀況으로 展開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目標하고 있는 保護貿易主義의 回避와 域內國家間의 交易擴大를 위하여는 域內國家간의 政策調整協議會의 推進으로 重複的 投資의 回避 및 域內 各國의 特性과 技術의 水準에 따라 相互補完의 分業關係 維持를 圖謀하여야 할 것이다.

즉, 尖端產業分野에서 先進國과의 合意的 分業, 比較劣位產業의 開途國移轉, 產業調整コスト의 分擔方式 協議, 既存 貿易政策과 產業政策의 調和롭게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현段階에서 同 地域內의 貿易政策 및 產業調整政策의 協助를 위한 方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積極 考察해야 한다.

첫째, 貿易生產과 關聯된 情報의 蒐集·分析體制를 確立해야 한다. 太平洋經濟圈體制의 貿易 및 生產關聯 諸統計 (예컨대 貿易매트릭스나 原資材, 에너지등 需給關聯 統計)를 蒐集·分析하고 나아가 展望을 導出해 낼

수 있는 情報分析體制를 構想함으로써 政策協助의 效率性을 높여야 한다.

둘째, 企業國際化에 대응한 民間企業間의 共同研究를 擴大해야 한다.

太平洋地域에서 進行되고 있는 企業活動의 國際化 및 多國籍化가 이 地域의 貿易 및 產業調整을 加速化시킨다는 건지에서 各國의 大企業間에 國際事業展開를 활발히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樹立·共同研究토록 해야 한다. 또한 New Round協商에의 積極的인 參與로 自由貿易基調의 貿易自由化維持와 GATT機能의 強化를 主張하는 한편 先進國과 後進國의 立場을 調整하는 役割을 違行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經濟發展段階가 유사한 아시아 NICs 및 ASEAN 國家들의 共同戰線構築을 主導함으로써, 향후豫想되는 太平洋經濟共同體構想을 위한 協商에서의 域內 아시아 NICs 및 ASEAN 國家들을 이끌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³⁾

2. 資本과 技術協力 強化方案

1970년대 말까지 域內에서의 최대 資本供給國은 美國이었으나 점차로 日本이 그 地位를 이어받고 있으며, 아시아 新興工業國 또한 資本輸入國에서 資本供給國으로 變貌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海外投資는 最近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으나, 地域別로는 北美와 東南亞, 部門別로는 貿易業과 資源開發投資에 集中되어 있다.

最近 強化되고 있는 先進國의 關稅 및 非關稅 障壁의 回避와 資源確保必要性高潮 등 여러가지 側面에서 볼 때 이와같은 海外直接投資는 擴大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比較優位를 잃어가고 있는 資源多消費型 產業 등은 環太平洋地域 開途國에 대한 直接投資를 통하여 과감히 移轉을 促進하여야 하며, 이러한 投資는 開途國들의 雇用問題와 國際收支改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勞動集約的인 輸出產業에 치중함으로써 域內 開途國들과의 協力體制를 強化할 수 있을 것이다.⁴⁾

註3) 韓國產業銀行, 前揭書, p.197.

註4) 上揭書, p.201.

技術協力 強化를 위하여는 新技術 프로그램을樹立하여 技術協力의 效率化를 圖謀하여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是 先進國과 開途國에 中間에 位置하였기 때문에 開途國 經濟發展에 必要한 中進技術의 移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是 域內 技術先進國들의 積極的인 參與를 유도하여 技術情報 機能을 強化하여야 할 것이다.

3. 資源協力 強化方案

우리나라는 급속한 工業化推進에 따라 需要가 急增하고 있는 主要源資材의 대부분을 域內에 依存하고 있으며, 域內에 이러한 資源이 대규모로 埋藏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長期的으로 安定된 價格에 確保하기 위하여 域內 資源保有國과 資源協力強化가 要望되고 있다.

資源協力의 方向은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企業의 資源保有國進出機會를 擴大할 수 있는 資源協力委員會의 設置, 二重課稅防止協定締結과 같은 具體的인 것이 되도록 努力해야 한다.

資源開發을 위하여는 資源開發 相對國의 政治, 經濟情報, 地質, 鎳床에 관한 資料, 탐광 및 開發에 필요한 新技術 등 여러가지 情報가 필요하다.

그러나 資源情報は 원래 閉鎖的이어서 이의 求得은 용이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資源開發의 計劃段階에서부터 採查, 開發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資源保有國과 共同으로 推進하는 한편, 여기서 얻어지는 情報는 데이터 베이스化하여 수시로 이용이 可能하도록 資源정보시스템을 強化하여야 한다.⁵⁾

또한 資源價格의 安定은 資源保有國이나 資源輸入國 모두에게 커다란 關心事이다. 즉 資源價格의 급격한 등락은 資源保有國이나 資源輸入國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충재고금융지원, 資源과 관련된 研究·開發에 대한 金融支援 등의 機能을 수행

5) 韓國產業銀行, 前揭書, p.200.

할 소위 “資源安定基金”과 같은 機構의 設置가 必要한 것으로 생각된다.

第 6 章 要約 및 結論

戰後 自由, 無差別原則을 根幹으로 國際經濟秩序를 유지해 왔던 GATT, IMF體制가 붕괴되고 保護貿易主義가 재차 擡頭되는 가운데 利害를 같이하는隣接地域의 國家들간에 自由, 無差別原則을 局地的으로 적용하려는 地域主義가 登場하였다.

1958年 EEC가 結成된 후 關稅同盟 完成등 그 分業化의 成功的인 進展, 그리고 이에 자극받아 세계 각 지역에서 地域國家간의 經濟協力과 利害를 통해 域內 국가간의 共同繁榮과 平等配分을 실현하려는 가운데 太平洋地域에 있어서도 經濟協力機構를 形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세계의 거의 절반이 넘는 국가들이 直.間接的으로 地域經濟統合에 參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太平洋地域 국가만이 유일하고 地域經濟統合에 參加하지 않고 있는 예외가 되고 있다. 그러나 地域主義의 세계적인 확산은 太平洋地域主義를 등장시키는 客觀的 要因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內的要因으로 괄목할만한 經濟成長으로 日本은 世界 超經濟大國으로 등장하였고, 韓國을 비롯한 아시아 NICs는 두드러진 經濟成長으로 國際經濟秩序의 변화과정에서 주목받는 위치를 확립하였으며 ASEAN諸國 또한 輸出指向의 成長政策의 추진으로 급속히 工業化를 진전시켜 새로운 NICs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러한 發展過程에서 야기된 太平洋地域諸國간의 貿易依存度의 深化와 貿易不均衡에 따른 南北問題의 地域的 해결모색과 아울러 投資, 交易의 확대 및 技術移轉을 통한 域內協力의 必要性 增大 등은 太平洋地域主義를 등장시키는 內在的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太平洋經濟共同體 形成에 관한 관심은 日本에서 가장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즉 1967년 小島 清이 제시한 PAFTA案과 1980년에 環太平洋連帶研究그룹이 발표한 環太平洋連帶案 등이 그것이다. 또한 美國은 1979년 미

국의회의 요청으로 H.Patrick과 P.Drysdale 양 教授에 의해 작성된 OPTAD案을 제시하였다. 이들 諸構想案들은 그 構想案 자체가 갖고 있는 問題와 함께 域內國家들의 異質性 등 여러가지 問題點과 더불어 그 實效性이 의문시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또한 利害關係國의 立場에서 그 동안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ASEAN의 消極的인 態度라고 할 수 있는데 太平洋經濟共同體 構想에 대한 이러한 ASEAN의 態度는 최근에 와서 太平洋經濟共同體 形成의 可能性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積極的인 方向으로 전환하고 있고, 이 지역 社會主義 國家인 中國과 蘇聯도 黃海經濟協力體 構想, 시베리아團의 開發 등을 이 지역 국가들에게 제안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太平洋地域은 무한한 成長潛在力を 지닌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고, 이러한 成長潛在力의 덕택으로 아시아 NICs와 ASEAN諸國이 高度成長을 지속하게 된다면 장차 太平洋地域은 國際經濟에서 새로운 經濟圈으로 부각될 것이 전망되고 있으며, 이 지역이 앞으로 계속 世界經濟活動의 中心地로 남아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共同協力이 필요하다는데 많은 국가들이 인식을 같아하고 있다.

太平洋經濟共同體를 形成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은 지역내 국가들의 消極的 態度와 經濟發展段階의 차이, 그리고 이를 추진시키는데 있어 主導的 役割을 할 국가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太平洋經濟共同體의 構想은 다음과 같은 方向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太平洋地域의 多樣性을 尊重해야 한다.

둘째, 각국의 發展段階을 고려한 現實的이고도 漸進的인 協力關係를 追求 해야 한다.

세째, 經濟發展의 健全性을 유지해야 한다.

네째, 開放的인 協力體制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역내 先進國과 開途國의 中間者的 立場에서 域內交易增進과 資本, 資源 및 技術協力面에서 커다란 활동이 요구되고 있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美.日 一邊倒의 依存關係에서 벗어나 經濟關係의 균형있는發展면에서 太平洋地域 協力에의 參與는 매우 바람직스러우며, 우리의 經濟發展을 위해 유익할 뿐 아니라 동시에 國際的 地位向上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展望된다.

SUMMARY

The Ideas of Pacific Economic Community and The Direction of The Policy of Korea

SHIN AN-GUEN

Major in Trad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

Han Sung University

After World War II GATT-IMF system that aimed at the world trade expansion and equilibrium through free trade and stabilization of foreign exchange was destroyed.

There has been a growing tendency that neo-protectionism in the trade and the regionalism, setting the goal at applying regionally the principle of liberal non-discrimination, are steadily spreading. After EEC was established in 1958, the idea of an economic community in the Pacific region was beginning to spring up, while each nation of the world intended to realize tariff leagues, specializa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Even though the nations half the world participate in directly or indirectly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 only the Pacific countries have an exception in economic cooperation. But the global proliferation of regionalism is encouraging an economic community in the Pacific Basin. While, moreover, Japan has grown up to

be an economic superpower, ASIA NICs has taken a remarkable stride in industrialization, and other Pacific countries have stretched their economic power. The deeper interdependence, the research of a device to solve the trade imbalance, and the growing necessity for economic cooperation in trade, investment and technical exchange from the process push forth to build a regional community in the Pacific Basin.

Among others, Japan has distinctly been interested in the shaping of a Pacific economic community.

It introduced several proposals, such as Pacific Free Trade Area(PAFTA) by Prof. Kojima Kiyoshi and Pacific Basin cooperation (PBC). In 1979, U.S.A. also proposed 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OPTAD) by Prof. H. Patrick and P. Drysdale. Those plans, however, had little progress because of their own problems heterogeneity in the economic status of those countries, and the doubts about efficiency.

Now, the negative attitude in the ASEAN countries that troubled the concerning countries turn gradually into the positive attitude, and China and U.S.S.R. show the interest in economic cooperation in spite of their socialist system, such as the idea of economic community in Yellow Sea Basin and the development in Siberia. Therefore the Pacific countries recognize that if ASIA NICs countinue to grow-up, thanks to the potential power, the Pacific basin must develope into a new economic epicenter, so that the countries have to cooperation with each other.

The difficulties in shaping the Pacific economic community are the

negative attitude, the differences of the economic powers and the absence of leading country in the Basin.

So, the idea of a Pacific community must be realized to meet the following directions:

- * to consider a variety of difference which each countries has .
- * to persue the gradual and actual cooperation.
- * to seek after a desired developement.
- * to maintain the open-door collaboration policy.

Accordingly, Kora must not only cooperation with the industrialized - and industrializing countries in the most field, but also improve its dependence on Japan and U.S.A. to accomplish the balanced developement. Korea's which, in turn, will have a good opportunity for Korea to embalance the economic power and status.

參考文獻

I. 國內書籍 및 論文

1.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아시아·太平洋問題基礎研究:地域協力體構想을 위한 方法論的 試案, 研究報告書 83-4, 1983.
2. 權奇成, 經濟摩擦(Economic Friction): 그 理論과 戰略, 東洋文庫, 1989.
3. 國際經濟研究院, 우리나라와 ASEAN의 經濟協力, 1981, 6.
4. 金泳龍, 環太平洋 經濟協力方案, 外換銀行月報, 1985, 6.
5. 金宇澤, 太平洋經濟協力의 展望과 意義, 世宗大學校(國際經濟研究所, 研究論集, 第6輯), 1986.
6. 朴維榮, 環太平洋經濟協力體制에 關한 研究, 大韓國際法學會(論叢, 第32券, 第2號), 1987.
7. 山澤逸平, 21世紀의 太平洋協力, 韓國貿易協會, 1988.
8. 徐青석, 太平洋沿岸國家의 經濟的 實態와 地域協力體 結成의 方向, 慶熙大學校(國際平和研究所, 平和研究, 第4券, 第1號), 1984.
9. 孫明煥, 經濟統合의 理論과 進展에 關한 考察, 忠南大學校(社會科學研究所, 論文集, 第2券, 第2號), 1975.
10. 孫炳海, 經濟統合論, 法文社, 1988.
11. 申鉉鍾, 貿易政策, 博英社, 1979.
12. 沈承鎮, 亞·太地域經濟의 域內貿易誘發構造 및 開放性 檢證, 世界經濟動向, 1990, 12.

13. 安斗淳, EC 및 亞.太經濟協力과 韓國의 役割, 國會報, 1989.
14. 安承喆, 國際經濟의 理論과 政策, 法文社, 1983.
15. 安青市, 太平洋地域協力體 構想에 대한 主要 當事國들의 立場과 利害關係, 韓國政治學會, 1983.
16. 楊秀吉, 太平洋協力論議의 展開와 우리나라의 對應, 韓國開發研究, 1983, 겨울호.
17. 魚秀永, 아시아.太平洋地域의 新國際秩序를 위한 太平洋地域 共同體構想, 國際政治學會(國際政治論叢, 第20輯), 1980.
18. _____, 太平洋共同體構想, 研究論文, 外交安保研究院, 1979, 12.
19. 에구치유치로, 太平洋經濟協力의 新局面, 國際問題, 1987, 9.
20. 李建雨, 世界貿易自由化와 亞.太地域協力, 世界經濟動向, 1989, 8.
21. 李相俊, 中共經濟論, 博英社, 1985.
22. 李英勳, 太平洋地域經濟共同體 形成에 關한 研究, 廉熙大學院, 1984.
23. 李長熙, 環太平洋共同體案의 國際開發法的 檢討, 國際法學會(論叢), 1986.
24. 鄭道泳, 國際經濟, 博英社, 1978.
25. 鄭淳元, 日本의 「環太平洋連帶構想」, 月刊國際經濟動向, 1979.
26. 鄭然雄, 太平洋經濟共同體의 構成論議, 外換銀行月報, 1980, 10.
27. 崔宣喆, 中國의 對亞.太政策, 外交, 1989, 6.
28. KOTRA, 아세안 5個國의 事業環境과 進出對策, 1981, 12.
29. PBEC 韓國委員會, 太平洋經濟協力과 ASEAN, 1989.
30. 韓國產業銀行, 環太平洋經濟協力體制 構築方向: 交易과 技術協力を 中心으로, 1985.
31. _____, 環太平洋經濟協力體制構築方向: 資源 및 資本協力を 中心으로, 1986.

32. 韓國政治學會, 太平洋地域 經濟協力體 構想에 關한 研究, 1983.
33. 洪文信, 아시아·太平洋 經濟統合의 效果分析, 產業研究院, 1984.

II. 日本書籍 및 論文

1. 徳山二郎, 太平洋の世紀-日本經濟の活路を求める一, タイメテソ社,
1978.
2. 山澤逸平, “太平洋經濟圈確立の可能性と問題點”産業研究会, 世界經濟
の中心と我力, 國の經濟政策, 1979, 5.
3. 中村雅秀, 途上國危機と アメリカ, 經濟, 1986, 8.
4. 環太平洋連帶研究ケルーフ, 協力關係促進た五の課題:中間報告書, 1979,
11.
5. 環太平洋連帶研究グループ, 환태평양연대의 구상, 1980, 8.

III. 外國書籍 及 論文

1. B. Balassa,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Illinois:Irwin, 1961.
2. _____,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London, 1962.
3. H. Aradt, PAFTA:An Australian Assessment, Intereconomics, NO.10, 1967.
4. H.R.Heller, international Trade: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73.
5. J.J.Stephan, Asia in the Soviet Conception, in Donald S.Zagoria(ed.), Soviet Policy in East Asia, New Haven:Yale University Press, 1982.
6. J. Tibergen,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Amsterdam:North Holland Publishing Co., 1965.
7. J.Viner, The Customs Union Issue, New York: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53.
8. K.Kojima,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Papers and Proceeding of the First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Conference, Tokyo:Japan Economic Research Center, 1968.
9. _____, Japan and a Pacific Free Trade Area, McMillan, 1971.
10. _____, Japan and New World Economic Order, London:Croom Helm Ltd., 1977.
11. K.Shin-je, Economic Integration in Asia, Hamburg, 1969.
12. L.B.Krause and Sekiguchi(ed.), Economic Interaction in the Pacific Basin,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1980.

13. OECD, The Impact of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on the Pattern of World Trade and Production in Manufactures, Paris, 12th April, 1978.
14. ___, Pacific Basin Economic Cooperation, 1983.
15. P.A.Drysdale and H.T.Patrick, Evaluation of a Proposed Asian-Pacific Regional Economic Organization, Australia-Japan Economic Relation Project Research Paper, NO.61, Canberra, July, 1979.
16.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Issues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983.
17. R.G.Lipsey, The Theory of Customs Union:A General Survey, Economic Journal, September, 1960.
18. R.Sanwald and Stohler, Economic Integr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1959.
19. The Pacific Basin Cooperation Study Group, Report on the Pacific Basin Cooperation Concept, In Sir JohnCrawford(ed.), Pacific Economic Cooperation:Suggestions for Action(Malaysia:Heneman Education Books), 1981.
20. T.Scitovski, Economic Theory and Western Europe Integration, London:OXford Univ.Press, 1958.
21. U.N., Regional Market Arrangement With Reference to the ECAFE Region, 1960.
22. Y.Bandura, The Pacific Community-A Brian-Child of Imperialist Diplomacy, International Affairs, Moscow:June, 1980.